



뉴욕동창회도 밀어주고 당겨주며 ‘으싸 으싸’

시니어 모임 골든 클럽과 80학번 동문들 첫 만남 ‘훈훈한 대화’

뉴욕동창회는 긴 역사만큼 동창회 참여 동문의 평균 나이가 높은 편이다. 전직 회장들이 매년 젊은 동문 영입을 가장 큰 과제로 두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세대 간의 교량 역할을 위해 애쓰는 뉴욕 동창회 46대 김정필 신임 회장은 임기 첫 활동으로, 시니어 동문이 모여 활동하는 골든 클럽과 80학번 세대와의 만남을 제안하였다.

지난 7월 8일 뉴저지의 한 식당에서 골든 클럽 홍종만(공대 64) 회장, 김정필(공대 71) 뉴욕동창회 신임 회장, 김병순(사회 82), 강병승(농생 86), 정경희(음대 82), 이창길(자연대 85), 윤자영(음대 89) 동문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맥주를 곁들인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홍종만: 골든 클럽은 1998년 15명의 시니어 동문이 자발적으로 만든 친목 모임이다. 저는 2010년에 가입하여 오랫동안 총무를 역임한 뒤, 손경택 회장에 이어 2021년 4월부터 회장을 맡았다.

매달 골프 대회와 당구 모임, 산행 모임을 가지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동창회 행사를 하면 골든 클럽이 측면에서 돕고 있다. 동창회 역시 골든 클럽이 행사하면 장소 제공과 대회 상품을 후원해 주기도 했다. 두 단체는 그동안 서로 협조하면서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에 가진 골프대회에는 우천임에도 5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석했다. 골든 클럽은 회원 참여율도 높고 기초가 튼튼하다. 그런데 점점 노령화되고 있다. 그래서 젊은 동문들이 참여하길 기다리고 있다. 문은 활짝 열려 있다. 꼭 골든 클럽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젊은 동문들이 행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면 언제라도 도와줄 마음이다. 골든 클럽은 재정적으로나 인력 동원 면에서 동문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

김병순: 저도 골든 클럽에 가입한 지 2~3년이 되어간다. 골든 클럽은 내부 결속력이 참 좋더라. 매월 골프 모임과 뉴스레터 발행을 하시더라. 그분들과 같이



김정필 신임회장의 제안으로 만난 골든클럽 홍종만 회장과 80학번 동문들이 건배를 하며 화합을 다지고 있다.

김정필 신임회장 “세대간 교량 역할할 것” 앞장 골든클럽 홍종만 회장 “젊은 동문 행사 돕겠다”

시간을 보내면 뭘지 모르게 편하다. 이전 애착이 가는 모임이다.

정경희: 제가 관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이사님들 평균 나이가 78세다. 행사 때마다 서포트해 주시는 이사님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대부분 골든 클럽 회원이셨다. 그분들의 문화적인 소양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열정도 뒤지지 않고 아이디어도 뛰어나셨다. 행사 후 칭찬과 조언도 많이 주셨다. 동창회와 저희 재단이 연계해서 일하면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여기 모인 동문끼리 우리도 골든 클럽에 버금가는 플레티넘 클럽을 만들자고 했는데 오늘 골든 클럽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니 동창회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모임 같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 플레티넘 클럽이 정식으로 만들어지면 많이 도와달라.

김정필: 선배가 골드인데 후배가 플레티넘이라니 말도 안 된다. (전원 웃음)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골든 클럽이 어떤 모



김정필 신임회장과 홍종만 골든클럽 회장(오른쪽)

임인지 몰랐다. 어느 날 골든 클럽에서 같이 골프를 치자고 해서 갔는데 선배님들과 치는 골프가 편안하고 좋았다. 골든 클럽 선배님들은 매달 정기 모임에 나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80대, 90대가 되셨음에도 정정하시다. 후배 입장에서는 클럽 내에서 선배님에게 배우는 게 참 많다.

무엇보다도 골든 클럽 선배님들은 후배들을 서포트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후배는 골든 클럽에 나와서 선배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된다. (다같이 웃음)

이창길: 골든 클럽은 홍보가 안 되어서

인지 오해도 있더라. 어떤 때는 동창회와 경쟁 관계 같아 보였다. 어느 분은 내가 골든 클럽에 같이 가입하자고 하니 앞으로 나와 거리를 두겠다고 하더라. 매주 만나는 사이임에도 처음 잘못 가진 오해나 생각이 안 바뀌는 것 같다. 골든 클럽이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강병승: 저는 뉴욕에 서울대 동문회가 있는지도 몰랐다. 직장에서 만난 분이 골든 클럽에 관해 얘기하길래 물어보니 ‘골든 클럽은 서울대 동문회가 아니다. 거긴 가지 마라’ 하더라. 골든 클럽이 해운 일에 대해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필요한 모임인 것 같다. 골든 클럽은 동문이 아니어도 재력이 되는 분만 가입하는 곳인가 하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홍종만: 골든 클럽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특별히 젊은 동문은 대환영이다. 우리는 시간도 많고 후배들을 서포트해 줄 준비가 다 되어있다. (전원 박수)

윤자영: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 타지역 동창회 경험이 좀 있다. 타지역은 대부분 80학번이 주축이 되어 활동한다. 단체 대화방에는 긴급하게 의사를 추천해 달라는 글도 올라오고 그 즉시로 해결책을 찾기도 한다. 뉴욕은 참여 동문 나이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어찌 보면 높은 나이의 선배님들을 보유한 뉴욕만의 큰 장점이다. 홍 회장님이 젊은 동문이 제안해 오면 무조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 참 기분 좋다.

김정필: 뉴욕 동창회는 골든 클럽과의 연계를 통해 젊은 후배들을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 시니어 모임인 골든 클럽과 젊은 동문들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활기찬 뉴욕 동창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취재=이영주(농생대 83)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이상강 회장 “미주동창회 10만불 지원” 약속 지켰다

취임 직후 5만5000불 이어 최근 3만5000불 보태
지부 활성화·젊은 동문 영입 등역점 사업에 주로 써

서울대 미주동창회 17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미주동창회 사업과 발전을 위해 개인 돈도 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던 이상강 회장이 취임 직후 5만5000달러를 내놓은데 이어 장학금 1만달러 그리고 17대 2기를 시작하면서 3만5000달러를 더해 총 10만 달러를 미주동창회를 위해 후원했다.

이상강 회장이 17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각 지부 활성화와 젊은 동문 영입이다. 지속가능한 동창회를 위한 최대 과제이고 각 지부들이 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돕는 것이 미주동창회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7대 1기 재정 운영도 두 부문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이상강 회장은 각 지부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11개 지부에 2만2500달러를 보냈다. 그동안 미시간, 미네소타, 워싱턴DC, 휴스턴, 샌디에이고, 하트랜드, 뉴잉글랜드, 뉴욕, 밴쿠버, 워싱턴주, 필라델피아 등 11개 지부는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미주동창회 지명장학금으로 1명씩을 더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했다. 밴쿠버 지부의 경우, 재정부족으로 장학사업을 한동안 중단했었는데 미주동창회 지원 덕분에 장학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었다.

또한 젊은 동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교적 활발하게 모임을 하고 있는 뉴잉글랜드 관악회에 2500달러를 보



지난 6월 열린 크루즈 평의원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강 미주동창회장과 김경숙 사무총장.

냈다.

이상강 회장은 “각 지부들이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미주동창회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재정 지원을 넘어 각 지부들의 성공사례를 알려 서로 공유하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지부를 방문해 동문들

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미주동창회가 어떤 도움을 줘야할지 고민도 하고 있다. 이미 뉴욕과 하트랜드, 워싱턴DC를 찾아가 지역 동문들을 만났고 오는 9월 초에는 뉴잉글랜드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상강 회장은 “동문들의 꾸준한 관심이사 가입과 후원 덕분에 미주동창회가 이런사업을 할 수 있었다”며 미주동창회에 대한 동문들의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지난해 홈커밍데이에 모교를 방문한 미주 동문들이 서울대 정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모습.

3박4일 동해 맛집투어도

서울대학교(총장 유흥림)가 주최하는 홈커밍데이 행사가 오는 10월20일(일) 모교에서 열린다.

행사의 시작은 오전 8시30분 모교 정문 앞에서 집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모교의 상징인 정문 앞 거대 조형물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오전 11시부터 규장각 등의 캠퍼스투어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중식 오찬은 호암교수회관에서 유흥림 총장이 주최한다. 특별히 미주 방문단을 위해서 오후 2시부터 유흥림 총장실을 방문해 총장과의 만남 시간을 갖는다. 유흥림 총장은 미주를 여러차례 방문한 바 있지만 이날 속 깊은 대화와 건의사항이 전달될 수 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본 행사는 뒷동산인 버들골에서 개최된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본 행사는 오후 5시 30분에 마무리된다. 본 행사에는 모교 총장을 비롯해 모든 보직교수와 교직원, 일부 재학생들도 참석해 모교를 찾

아준 동문들과 미주 방문단을 환영하게 된다.

20일 본 행사에 이어서 행사후 일정으로 21일에는 총장과 보직 교수, 총동창회(회장 김종섭) 임원들이 총출동해서 남서울 CC에서 기념 골프대회를 연다.

또한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를 중심으로 마련된 동해맛집투어가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간 진행된다. 투어는 첫 날인 22일에는 서울에서 출발해 김천과 부산을 방문하게 된다. 부산에서는 송도해상케이블카와 동백섬을 찾게 된다. 이어서 23일 오전에는 부산에서 해변열차를 관람하고 오후에는 울산으로 향해 간절곶, 옹기마을,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한다. 24일에는 경주로 이동해 오전에는 불국사, 오후에는 대릉원과 천마총을 관광한다. 또한 첨성대, 월정교를 찾게 된다. 마지막날인 25일에는 문경시로 이동해 문경세계를 찾게 된다. 오후에 해산한다. 비용은 899달러다. ▶문의:(818)395-1967(백옥자 총무국장) /okjapaik@gmail.com

미주동창회보 이메일로 배달합니다 종이회보 원하면 주소 알려주세요

서울대 미주 동창회(17대 회장 이상강)는 미주에 거주하는 동문들에게 이메일로 지난 7월호부터 미주동창회보를 배달하기 시작했다.

미주 동창회 측은 “최근까지 동창회가 갖고 있는 이메일 주소는 3016개였고 여기에 최근 뉴욕뉴저지 지부의 2023년 주소록에 등록된 838개를 추가해 총 3854개의 주소에 이메일을 보냈다”면서 “상당수의 동문이 종이 동창회보를 주소 이전 등으로 받지 못했는데 다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돼 기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미주 동창회 측은 “발송된 이메일 중 25~30%가 없어진 주소(address not found)로 반송돼 왔지만 수신한 동문들의 오픈 및 클릭률이 높아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원래는 이메일에 PDF파일을 첨부해서 보내고자 했지만 파일의 사이즈가 예상보다 커서 동문회 사이트(www.snuaa.org)에서 직접 보거나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집행부는 종이 회보가 잘못된 주소로 배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동문들의 지적을 받고 다양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달 이메일 발송을 테스트한 결과 호응도가 좋아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메일 발송을 시작한 것이다.

이제 동창회보는 (1) 종이 회보를 수신하는 경우 (2) 이메일로 수신하는 경우 (3) 종이 회보와 이메일을 동시에 수신하는 경우로 나뉘게 된다.

한편 이메일을 받은 동문 중 종이 동창회보의 수신 중단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집행부는 종이 회보를 받기 원하는 동문들의 경우, 정확한 주소를 동창회 이메일(snuaausa17@gmail.com)로 알려주거나 지부장들을 통해서 통보하면 언제라도 수신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동문 커뮤니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장병희 편집위원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분란 딛고 새출발 ... 만나고 싶은 동창회 만들겠다”

뉴욕동창회 신임 회장 김정필 KEI · USA 대표

임회장은 이날 참석 동문 대다수의 찬성으로 46대 회장으로 선임이 확정되자 “80학번으로의 세대교체 교량 역할을 위해 회장직을 수락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뉴욕 동창회장직을 맡게 된다.

뉴욕 동창회는 지난 6월 20일 뉴저지에 위치한 모 중식당에서 2024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46대 동창회장으로 김정필 동문을 선출했다. 김정필 신임회장은 이날 참석 동문 대다수의 찬성으로 46대 회장으로 선임이 확정되자 “80학번으로의 세대교체 교량 역할을 위해 회장직을 수락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뉴욕 동창회장직을 맡게 된다.

-먼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회장님을 모르는 동문을 위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대 71학번이고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에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에 3년반 동안 근무하다가 본사 복귀후에 해외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한 뒤, 83년에 미국지사로 발령받아 미국으로 오게 되었지요. 86년도에 미국회사로 옮겨서 미국 이민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부터 중장비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들을 한국에서 주문 제작하여 미주와 유럽의 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82년도에 아버지 친구의 딸과 결혼하여, 미국 와서 낳은 딸 쌍둥이와 두 손녀가 있습니다. 아내(강혜미)는 연세대와 Manhattan School of Music에서 오르간과 지휘를 전공한 뒤, 언더우드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큰 딸은 정부기관에서, 작은 딸은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뉴욕 동창회는 이사들이 임시 총회를 요구할 만큼 내용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뉴욕 동창회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안타까워하시는 동문들이 많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1년간 뉴욕동창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동문 간의 소통의 결여와 오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 모두가 불편해하고 마음이 상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체 카톡방에서 주고받은 문자는 서로의 감정을 더 상하게 했지만, 사실 지나고 보니 그리 큰일도 아니었습니다. 임시 총회 때 서로 얼굴을 대하고 보니 반가움에 다들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바뀌어서 개인적으로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제 동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사자들 간에서 서로의 처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주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입니다. 사실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조용히 문의해 주고, 불편한 것은 잠시 참으면 되는데 문자의 한계로 그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애타 한국 최고의 지성인 모임에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노력해야겠지요. 앞으로 뉴욕 동창회는 서로 힘을 모아, 만나면 기쁘고, 또 빨리 다시 만나고 싶은 동창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뉴욕 동창회의 저력을 믿습니다.

-같은 분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왜 그런 분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분란은 동창회 회칙을 잘 못 이해한 분들이 계셔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창회는 순수 친목 단체라서 과거에는 일반 관례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칙에 세부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에 따라 오해가 생길 위험이 많았던 게



세대교체 교량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김정필 뉴욕동창회 신임 회장.

“불필요한 오해로 마음 상한 동문들 많아 정관에 이견 없게 현실적으로 개정할 것”

“선후배간 잦은 소모임 통해 세대 교체 타 지역 동창회와도 기꺼이 협력하겠다”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간단한 정관으로 운영되어도 단 한 번의 잡음도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비대면 모임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관례로 행해오던 일들도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일부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불필요한 이견 표출에 감정이 더해져서 심각한 분란으로 이어진 건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4개월에 걸쳐서 정관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개정하여 12월 정기총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분란도 진정이 되었으니 화합과 회복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이사들의 회장직 추천을 처음에는 고사하셨다가 어렵게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에게 중한 일을 맡겨 주시니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뉴욕 동창회는 대체로 회장직을 사양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회장(곽승용 회장), 골프위원장(조상근, 금영천, 연영재 회장), 제1부회장(금영천 회장)과 골든 클럽 사무총장(2021~) 등을 맡기도 했습니다. 44대인 21~23년도에는 제1부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차기 회장을 맡아야 했지만, 당시에 골든 클럽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어서 업무 과다로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회장을 맡았었지요.

그런데 그분이 동창회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이사장과 제1부회장을 정하지 못해서 지난 일 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신 듯 합니다. 회장 혼자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

다 보니 회원들 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많았지요. 제가 이번에도 회장직을 사양했던 이유는 이제는 좀 더 젊은 세대가 일을 맡아야 하지 않나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제가 맡게 되었고, (세대교체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에게 역할이구나 싶었습니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제 뒤를 이을 차기 회장부터 정했습니다. 이제 김 병순(사회대 82) 동문이 차기 회장으로 결정되고 나니 동창회 모든 업무가 안정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 “80학번으로의 세대교체 교량 역할을 위해 회장직을 수락한다” 고 밝히신, 조금 의외의 소감은 그래서 나온 얘기로군요.

이번 분란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나름대로 소독도 있었습니다. 몇몇 선배님의 의견 충돌과 분란을 지켜본 80학번 세대 동문 10여 분이 목소리를 낸 겁니다. 후배의 시각에서 바라본 객관적인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저를 비롯하여 여러 선배님이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미주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 영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동창회 참여를 높이려면 선후배 간의 소모임을 동창회가 자주 주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영천 회장 때부터 추진하던 일이 있습니다. 80년대 학번의 참여가 저조하여 세 차례 모임을 주선하고 참여와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30여 명이 가까운 젊은 동문이 한 자리에 모이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앞으로 선후배 간의 소모임 기회를 자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단과대 회장 선출을 서둘러 달라는 첫 공지를 올리셨습니다. 동창회 조직을 재정비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동안 코비드 등으로 인하여 단과대학 모임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 가입을 해도 자신이 속한 단과대학 회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동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과대학 동문회의 모임을 장려하고 필요한 조직을 정비하여 동문 간의 모임이 활성화하는 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단과대 현, 전임 회장님들이 적극 호응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이른 시일 내로 단과대에서도 회장을 선출하는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이는 뉴욕동창회 조직도 재편되지만, 자연스럽게 단과대 모임도 활성화되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지부 회장으로서 미주 동문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뉴욕은 LA, 시카고 지부와 마찬가지로 동창회원 숫자와 활동 규모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미주동창회보를 통한 소식 외에는 미주 총회나 다른 지역 동창회와의 교류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 동창회와 자주 교류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행사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뉴욕 동창회는 언제라도 LA를 비롯한 여러 지역 동창회가 제의해 오시면 기꺼이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뉴욕 동창회를 많이 활용하셔서 더욱 활기찬 미주 동창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동창회가 앞만 보고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뉴욕 동창회의 발전은 바로 미주 동창회의 발전으로 이어지니까요. 고맙습니다.

취재=이영주(농생대 83)

뉴욕 지부 향후 행사

- 8월 10일 토요일 11시 Rockland Lake State Park 총회(회장 제1부회장 감사 이사장 각위원장 회 선임보고 /사업보고 /예산보고) 및 야유회
- 10월 10일 목요일 Pelham Split Rock Golf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 9월-10월 15일까지 장학생 모집
- 12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 송년회
- Double Tree Hotel, Fort Lee

동창회 주소

SNUAA NY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회비 이사회비 제출 시, 한글 이름, 학번 표시하시고, payable to SNUAANY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호 동창회보를 읽고

유익하고 감동적인 읽을 거리 “고마워요”

저는 시애틀에 사는 상대 57학번인 이길송입니다.

서울대학 미주동창회보는 회가 거듭될수록 유익하고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많아 받아보는 즐거움이 큼니다. 책을 사랑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각자가 읽은 내용 중에서 인상적이었거

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교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동창회보에서 읽은 내용에서의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6월 회보에서 이재권 동문에 관한 <원로초대석>, <인생의 스위트스팟은 80대부터>, <나는 청어처럼 살고 싶다>는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 방문기>, 각 지부 동창회 소식

등 흥미있는 기사로 꽉 채워진 느낌입니다.

<원로 초대석>의 이재권 동문은 젊었던 시절 서울대 기독교 동문회에서 만나 훌륭한 선배로 좋은 우정을 나누곤 했는데 그토록 많은 공을 세우고 <운동주 문학의 밤> 등 여러 가지 큰 행사를 하고 있음에 놀라움과 함께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

회> 등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며 그 용기와 보람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이런 사업을 발굴하여 소개해주신 장병희 편집위원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회보를 만드는 편집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하시는 일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 크시기 바랍니다.

93년 시작한 성탄 음악회 꾸준히 개최해 큰 보람

이길송 동문의 이민 2막 인생

미주 동창회보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시애틀에 거주하는 이길송(상대 57) 동문에게는 세상과 소통하는 한가지 방법이다. 그는 최근 상대 1년 선배인 이재권 동문의 기사를 보고 아주 오래전에 헤어진 연인을 찾은 듯 기뻐했다. 그리고 새로운 우정의 길을 열었다. 이 동문이 동창회보 편집진을 격려하며 이재권 동문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는 메일을 보내와 이 동문에게 연락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 동문이 참 아름다운 삶을 사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 1986년 이민은 이길송 동문의 미국 이민 삶을 간추려 봤다.

이길송 동문은 정말 좋은 남편이다. 부부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각자가 읽은 스토리 중에서 인상적이었거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다. 스토리에는 동창회보도 예외가 아니어서 가끔 두 부부의 화제의 대상이 된다. 특히 지난 6월 회보에서 이재권 동문이 소개된 ‘원로 초대석’을 읽고 나눴다. 이길송 동문은 이재권 동문을 젊었던 시절 서울대 기독교동문회에서 만나 훌륭한 선배로 좋은 우정을 나누는 바 있다. 1인칭 자서전 형태로 정리했다.

1. 1957년 상대에 입학했다

나는 1957년에 상대 경제학과에 입학하고 61년에 졸업했다. 졸업반 때 4.19 혁명 데모에 참여 했다. 한진 입사시험 수석으로 합격했으나 5.16 혁명으로 몇 개월 후 군에 입대했다. 이민하기 전까지 ‘한진 화학(주)’에서 상무이사로 일했고 1986년에 은퇴했다.

1983년 상대 졸업 동기 몇 명과 ‘57학번 서울상대 동기 동창회’를 조직하고 2대, 3대, 4대 부회장으로 이민오기 전까지 즐겁게 활동했다. 지금도 70-80여 명의 동기들이 참석하며 친교모임을 갖는다. 또한 어려운 친구 자녀들을 위해 장학금도 지급한다. 그 외에 취미별

동아리모임도 만들었으며 모임이 왕성해서 큰 보람을 느낀다. 또 기독교 실업인의 모임인 CBMC(기독교실업인회) 강남지회를 조직했다. 1982년부터 2대 총무로 시작하여 이민 전까지 계속 총무로 일하며 ‘비즈니스에 하나님을 모시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비신자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양심적인 실업인으로 성장하는 일에 보람을 가졌고 특별히 회원 전부가 참여하는 성가대를 조직하여 지휘자로, 아내 안문자는 반주자로 활동하며 워커히 호텔에서 개최한 총기독실업인 대회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2. 1986년 조기 은퇴후 미국 이민

1986년 7월2일에 시애틀로 이민왔다. 내 나이 48세로 조기 은퇴하고 미국에 온 것이다. 시애틀 북쪽 머킬티오(Mukilteo)란 아름다운 지역에 장인 장모와 처가의 6남매 중 5남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서 우리 가족도 자연스럽게 이곳에 짐을 풀고 38년을 살았다. 우리 두 아이는 미국의 동부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아들은 법대 교수로, 딸은 카운슬러로 일하며 뉴욕에서 가정을 이뤄 열심히 살고 있다.

이민 후, 평소에 취미였던 사진 찍기를 살려 ‘사진 Studio’ 운영 및 사진용



잠자리에 들기전에 그날 스토리를 함께 나누는 커플. 이길송 동문 부부.

품 수입 판매를 20여 년 동안 했다. 크게 부를 누리진 않았지만 아내와 함께 깨끗하고 즐거운 비즈니스를 했고 힘이 들거나 많은 시간을 빼기지 않은 관계로 대신 취미였던 평생의 테니스 활동이 계속됐다. 또한 성가대 지휘자가 공석일 땐 지휘자로 봉사했던 경험에서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

3. 스노미쉬 테니스 클럽 창립

이민 초창기부터 한인과 미국인 4명이 모여 고교 코트에서 테니스를 즐겨오던 중 한 두 사람씩 합류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계속 늘어나자 동호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동호회 명칭과 정관을 만들었다.

2006년 12월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통과시켜 현재의 스노미쉬(Snohomish) 테니스클럽이 발족되었고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2대까지 역임했다. 매년 회원들이 증가하여 50명이 넘게 되었고 가족 야유회, 정기 테니스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모임이 성장했으며 지금은 한인은 물론 베트남, 미국, 중국, 에티오피아 출신 등이 참여하여

테니스 동호회만으로도 이민의 나라를 실감하게 되었다.

4. 크리스마스 콘서트 시작

장인 안성진 목사와 가족이 만든 ‘머킬티오 크리스마스 콘서트’ (Mukilteo Christmas Concert)를 시작했다. 나는 미국 이민자로서 가장 보람 있고 삶의 기쁨을 있게 해준 이 음악회에 행정책임자로 30여 년 동안 일 해온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다.

안씨네가 개최해 오는 ‘머킬티오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30여 년 전 미국 서북쪽의 한 귀퉁이에서 6남매의 아버지 안성진 목사가 만든 작은 음악회로 시작했고 지금은 큰 음악회로 성장했다.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음악 가정이라고 말한다. 물론 음악을 전공한 연주자들이 있다. 바이올린 3명, 피아노 6명, 성악 1명, 플룻 1명, 트럼펫 1명, 드럼 1명이다. 음악을 사랑하는 가족이란 뜻일 것이다. 30여 년 전 음악을 사랑했던 안성진 목사는 자녀들이 타고난 음악적 재질에 대한 감사와 이역만리 남의 나라에 뿌리를

(5면으로 계속)



테니스 동호회 창립자답게 전 가족 3대가 테니스를 즐긴다.

“열심히 하고 있으면 누군가 어디선가 보고 있더라”

필라델피아 윤정나 동문의 아메리칸 드림

서울대 동문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아직도 활력이 넘치는 85세다. 윤 동문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나누고자 한다. 본인은 그냥 평범한 교사였다고 했지만 서울대 동문들이라면 한번쯤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을 얘기한다.

윤정나 (음대57.사진) 동문은 역경을 이겨낸 아메리칸 드림의 산증인이다. 아메리칸 드림의 정의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큰 부를 이룬 경우를 말한다. 그에 비해서 다른 의미의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유와 기회의 나라 미국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힘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한껏 봉사하는 꿈을 실천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큰 부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윤 동문은 확실히 아메리칸 드림을 쟁취했다고 볼 수 있다.

윤 동문이 세 살이었던 어느날 갑자기 열이 높아지면서 아프기 시작했다. 2남 2녀의 막내딸인 그를 가족들이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핵성 관절염에 걸린 것이다. 가족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윤 동문은 잘 걷지 못하게 됐다. 이 화여중을 졸업하고 서울예고에 진학했다. 당시 서울예고는 이화여고에서 분리된 신생학교여서 윤 동문은 2회 졸업생이다. 바이올린을 전공으로 서울대 음대에 진학했다. 대학 졸업 후 1년 동안 KBS오케스트라에서 일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을 채우는데는 부족함이 커서 외국 유학을 생각하게 됐다.

당시에는 악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던 시절이고 유학도 쉽지 않았지만 자신이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 있어서 배울 수 있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며 살았다.

1964년 9월 3일 미국에 도착했다. 미 중부에 나자렛칼리지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유학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처음부터 석사과정에 들어갈 수는 없어서 2년을 공부하고 신시내티 컨서버터리 오브 뮤직으로 옮겨서 2년 과정의 포스트 그래주에잇 디플로마를 받았다. 미국 입국부터 디플로마까지 4년이 걸렸고 피바디에서 71년에 석사를 받았다. 학부는 바이올린 전공이었지만 석사는 비올라로 받았다.

당시 음악학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한국에 티칭 자리를 알아봤다. 하지만 인연이 안돼



서였는지 아무런 답이 없었다.

“그때도 몰랐지요. 직접 찾아가서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고 누구보다 절실해야 했는데 몰랐죠.”

한국에서의 치열한 자리 싸움을 본 적이 없는 윤 동문은 계속 기다렸다. 그래도 놓 수 없어서 시작한 것이 로컬 학교에 음악교사 자리를 찾았다. 그러던중 필라델피아교육구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행은 포기하고 필라델피아에 정착하게 된 이유다. 1971년 자리를 잡고 32년 만인 2001년에 은퇴했다.

“미국의 음악 교육은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악기를 잘 다뤘기에 취업이 됐고 음악교사로 오래 근무할 수 있었던 겁니다.”

1971년이면 이민도 본격적으로 받기 전이다. 윤 동문의 재능과 실력이 자리를 잡는데 큰 힘이 됐다. 차별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힘들었을 터인데 실력을 인정하고 채용해준 교육구가 지금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그리 좋은 곳에 있지 않았는데 점점 좋은 학교로 이동했고 마지막에는 교육구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윤 동문은 음악적 재능이 있는 학생을 잘 골라내서 잘 교

육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저는 그래서 항상 기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몸도 불편한 제가 수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실력을 인정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971년부터 50년간 음악교사 많은 학생의 음악적 재능 발굴 은퇴 후 학교·교회에서 봉사 최근 자서전적 에세이도 출간

육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저는 그래서 항상 기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몸도 불편한 제가 수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실력을 인정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974년에는 칼 도티(Carl Doughty)씨와 결혼했다. MIT학부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컴퓨터사이언스를 전공한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는데 윤 동문에게 적극적으로 프로포즈해서 결혼까지 했다.

당시에 미국에 유학와 있던 작은 오빠가 결혼을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미국에 온 큰 오빠는 반대했다. 큰 오빠는 타계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큰 오빠의 반대도 일리가 있는 것이 당시에는 한국 여자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는 기지촌 여자 밖에 없던 시절이라서 반대가 극심했던 것이다. 앞에서 같이 밥도 잘 먹고 대화도 잘 나누는 오빠는 한국에 돌아가면서 “난 이 결혼 반말세”라고 의외의 행동을 했다.

오빠의 생각하지 않던 극렬한 반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당시 혼자 되신 어머니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겨울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갔다.

칼을 만나 어머니는 좋아하셨다. 윤 동문의 미국 출가를 적극 지지했다. 어머니는 “네가 다리가 불편해서 우리 집에는 식탁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화장실도 일찍부터 양변기를 썼다”면서 “한국에서는 네가 불편해서 살기 힘들다. 미국에서 살라”고 힘을 보태줬다. 큰 오빠도 찬성할 수 밖에 없었다. 남편

칼씨는 지난 2022년에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다.

1977년 어느 날 평소 알던 지인이 자신이 다니는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고 해서 방문했다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됐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직을 계속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교육구에서 일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봉사하고 있다.

큰 부를 쌓아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들 중에 금전적 힘과 영향력은 인정을 받지 않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 윤 동문은 큰 부를 쌓은 것은 아니지만 돈 걱정 없이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다. 교회에서 또한 학교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

윤 동문은 남편과 함께 거주했던 주택도 처분하고 현재는 어시스턴트 리빙에 거주하며 매일 운동과 수영을 하고 있다. 주말이면 교회에 나가고 하루에 2마일을 걷는 일상을 즐기고 있다. 또한 2001년 은퇴 후 2002년부터 사립 고등학교에 파트타임 음악교사로도 일하고 있다. 1주일에 이틀간 근무한다. 물론 서울대 동창회 활동에도 적극 참석하면서 후배들을 돕고 있다.

윤 동문은 “미국에서는 누군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보고 있더라”면서 “또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같아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다보면 기회가 생기고 인정을 받는 기회의 나라”라고 말했다. 만약 한국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다른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수 많은 제자들의 음악적 영감을 일깨우는, 수 많은 수업시간이 아직도 윤 동문에게는 진행형이다.

최근에는 교회 신자들의 권유로 3년간 글을 모아 자서전적 에세이 집도 출간했다.

또 윤 동문은 특히 미주 동창회보의 열혈 독자이기도 하다.

장병희 편집위원

<4면에서 계속>

내리고 잘 성장하게 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음악으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1993년 12월 제 1회 콘서트는 이 지역의 한 작은 미국교회에서 개최되었고 가족들과 몇명의 친구들이 출연했다. 이 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교회의 교인들과 동네의 미국인들이 참석하여 한국인들의 음악성과 그 뜻에 놀라워하며 즐거워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지금은 큰 음악회가 되었고, 음악회는 무료이지만 참석자들의 자발적인 도네이션으로 이어

졌고 전액을 뜻있게 일하는 기관에 보내는 보람도 있게 됐다. 장인 안성진 목사는 2001년 9회 음악회를 마지막으로 타계했다. 이후부터 내가 이어받아 기획하며 행정을 맡았고 줄리아드 출신인 안 목사의 외손자가 디렉터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5. 음악을 통한 사랑과 나눔

처음 시작한 작은 교회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없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병을 앓고 있던 한 할머니가 “매해 개최하는 한인들의 음악회를 위하여”라는 유언과 함께 교회에 그랜드피아노를 기증했다.

음악회가 있는 날에는 차들이 너무 붐벼 동네의 집 마당에 차를 세워놓도록 편리를 봐주는 일도 있었고 어느 해에는 경찰들이 직접 교통정리를 해주기도 했다.

그 시절에는 한국식품점이 한 곳밖에 없었던 때라 김밥을 구경하지 못했던 미국인들이 음악회를 마친 후 친교를 위한 리셉션에 선보인 김밥을 신기해 하는 등 인기가 좋았다. 매년 김밥을 먹으러 온다는 미국인도 있었다. 한인들과 미국인들 외에 여러 나라의 이민자들도 모여 성찬질의 의미를 되새기며 출연자들과 안 패 밀리를 격려하며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행사로 발전했다.

제 20회 콘서트에서는 어려서 출연했던 안 목사의 손주들이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 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매년 참석했던 청중들은 훌쩍 자란 자녀들의 훌륭한 연주에 놀라워 하며 반가워했다.

시애틀의 Y 영사의 감사장 “격조 있고 평화스러운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청중들의 높은 평가와 호응 속에서 미국과의 문화적 교량을 수행에 오고 있으며 그런 가족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미 주류사회에서 더욱 사랑받고 발전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정리=장병희 편집위원>

“땅에 빚지지 마라, 언젠가는 땅이 이자를 요구해 올 것이다”

한상기 (농학53) 조지아대 전 명예교수 · 작물유전육종학자

아프리카 기근 해결에 젊음 바쳐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헌정
한국인 최초 아프리카 추장 칭호
‘나’ 알기 위해 매일 꿈도 기록

지난 5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헌정식’에서 한상기(농학53) 동문이 대통령령명 증서를 받았다.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선정해 예우·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까지 총 85명이 지정됐다.

한상기 동문은 초등학교 교과서와 베스트셀러 동화를 통해 ‘까만 나라 노란 추장’으로 어린 세대에 더 잘 알려진 세계적인 작물육종학자다. 안정된 모교 교수직을 버리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연구소 초빙까지 뿌리치고는 38세 되던 1971년 아프리카로 날아갔다.

나이지리아 국제열대농학연구소(IITA)에서 한 동문은 카사바, 양, 고구마 등 구근작물과 식용작물의 품종을 개량해 내병성과 수확량을 늘리는 데 청춘을 바쳤다. 무려 50명 가까운 아프리카 농학도들이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고, 12명에게 포스닥 과정에서 수련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나이지리아 이키레읍 주민들은 한 동문을 ‘세리키 아그베(Seriki Agbe 농민의 왕)’라는 칭호의 추장으로 추대했다.

-작물육종학자의 길을 걷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어릴 적부터 자연과 식물에 관심이 많았고, 험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른이 되면 우장춘 박사님과 같은 사람이 돼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목표가 분명해 농학과를 입학했지요.”

-모교 교수로서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았을 텐데, 나이지리아로 가셨습니까.

“한국에 남아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점은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 한국의 연구 환경이 너무 열악했고, 도전적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배운 식물유전육종학 기술이 긴요히 쓰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 해답이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가지 마라’고 하셨죠. 아내, 자녀들도 탐탁치 않아 했고요. 큰딸은 후배 교수에게 말하고 세 남매를 데리고 갔지요. 나이지리아가 내전 직후라 치안도 불안하고, 말라리아를 비롯해 여러 가지 풍토병에 걸려 많은 고생



한상기 동문과 그가 개량한 작물인 열대성 카사바 품종(오른쪽 사진).

을 했습니다. 다행히 국제열대농학연구소는 포드재단과 록펠러재단에서 든든하게 지원하던 곳이라 생활 환경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큰딸을 돌봐주었던 김광호(농학61-65), 이석순(농학62-66) 박사에게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한 동문은 국제열대농학연구소에서 23년간 하루도 결근 없이 구근 작물 개량 연구에 매달렸고, 지구를 20바퀴 돌며 세계 8대 작물 중 하나인 열대성 카사바의 내병다수성 품종 등을 개량해 냈다. 당시 나이지리아 재래종 카사바는 병충해에 약해 쉽게 쓰러지고 수확량이 저조했다. 카사바는 25개 나라 8억 명이 주요 식량으로 삼는 주요 작물인데 우리나라 고구마와 비슷한 뿌리 작물이다. 말린 가루를 데운 물 등에 반죽해 먹는다. 버블티에 들어가는 타피오카가 카사바 뿌리에서 추출한 녹말이다. 소주 제조에도 타피오카를 쓴다.

-카사바의 내병다수성 품종 개량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카사바 원산지인 브라질 캄파나스에 가서 카사바 재래종과 야생 근연종의 종자를 도입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도입한 카사바 야생 근연종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병에 강했습니다. 이 야생종부터 내병성을 도입하고자 카사바 재래종과 교잡했습니다.

또 그 차대를 재래종과 교잡했고 거기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강한 개량 카사바가 나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행운이었습니다. 한 소스에서 두 병에 대한 저항성을 얻을 수 있었고 수량과 품질도 좋은 계통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 집중하다 보면 가끔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공로로 추장 칭호까지 얻으셨죠.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나이지리아 요루바족 이키레 읍이 꽤 큼니다. 그곳의 추장으로 추대되어 세리키 아그베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현지어로 농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요루바족은 자신의 얼굴을 칼로 긁어서 상처를 내는 방법으로 서로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저도 추장이 되면서 그들과 가족이 된 셈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는 평생 많은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본인 자신입니다.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노력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포착하는 지혜와 결단을 내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 희생을 각오해야 하고요. 저는 운 좋게 그것을 잘했다고 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은퇴 후 미국으로 가셨는데, 한국에는 언제 오셨나요?

“2013년, 아내의 치매 요양을 위해 왔습니다. 임자는 2020년 9월 먼저 저세상에 갔고요. 수원에 큰딸이 살고, 한국에 있을 때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책을 많이 집필하셨습니다. 내용도 묵상집부터 학술서까지 다양합니다.

“시간이 많았고, 기록한 노트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노트가 200권이 넘거든요.” 그는 ‘나는 나이지리아 사람, 아프리카 격언집’, ‘아프리카, 광야에서’, ‘500년간 잊었던 뿌리와 정신 찾다’, ‘작물의 고향’ 등을 집필했다. 그의 책 중 ‘착한 꿈을 꾸면 착하게 산다’는 꿈꾼 내용 600개를 기록한 책이다. 그 꿈을 붙잡기 위해 침대 옆에 종이와 연필을 두고 꿈꾼 즉시 기록해 왔다. 90이 넘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일상을 기록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꿈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니까.

“심리학자 칼 융이 꿈은 사람의 심연

에서 나오는 것이라 했지요. 꿈의 세계를 모르면 일생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록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격언집도 냈지요.

“예전에 썼던 것을 보완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문자가 없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들의 고유한 철학을 기록으로 남겨 전수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원천적인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이 자자손손 구전돼 내려온 아프리카 격언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를 이해하는 데 격언집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의 경험으로 아프리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정신과 영적 세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순수함도 매우 높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라 현대인보다 훨씬 더 참된 행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개할 만한 격언이라면.

“‘땅에 빚지지 마라. 언젠가는 땅이 이자를 요구해 올 것이다.’ 로버트 맥나마라 전 세계은행 총재는 이 격언을 인용해 아프리카 대륙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경제 성장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조했다. ‘빠르게 가고 싶다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는 격언은 널리 알려진 격언 중 하나지요.”

-구순을 넘기셨는데,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많이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배운 단전호흡도 30분간 하고요. 모래 고등학교 동기 네 명과 점심을 하는데, 여기서 두 정거장 지하철 타고 가야 해요. 충분히 갈 만합니다.”

-젊은 농학도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가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는 농경지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풍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변화된 기후, 비옥함을 잃어버린 토양, 병해충 등으로 식량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후배 과학자들에게도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식량위기에 대한 진지하고 간절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남주 기자

△1933년 충남 청양 출생 △모교 농과대학(농생대) 학사·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식물유전육종학 박사 △전 모교 농과대학(농생대) 교수 △전 국제열대농학연구소(IITA) 부장 △나이지리아 이키레읍 추장(농민의 왕) △전 미국 코넬대학교 명예교수 △영국 기네스(Guinness) 과학공로상 △영국생물학회 펠로우 △미국작물학회 펠로우 △네덜란드 농업 생태계 환경 학술지 편집위원 △인도 구근작물 학술지 편집위원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우수동창인상

동문 10여명 대국 전투 치르면서도 여유롭게 덕담

남가주 동창회 바둑 동호회 '서기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치매예방에도 좋아

남가주 총동창회에는 바둑 동호회인 서기회가 있다. 2021년 바둑을 좋아하고 즐기는 동문 10여명이 모여 최진석(법대 64) 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출범했다.

지난 2월에는 ANC 온누리 교회의 바둑팀과 친선 대회를 갖기도 했다. 각 팀에서 각각 5명씩 출전해 5전 3승제로 승패를 가리는 시합이었는데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아쉽게도 패배했다. 오는 8월26일 열리는 후반기 대회 때는 꼭 이기

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그동안 이명일(약대 73) 홍동식(법대 64) 나천택(공대 68) 동문 집을 돌아가며 모여 기량을 갈고 닦고 있다. 지난 5월 중순에는 임춘택 남가주 총동창회 장의 초대로 파사디나 자택에 모여 단합대회를 갖고 경합을 벌였다.

아마 5단인 최진석 회장은 "바둑은 바둑판과 바둑알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며 "특히 정신을 집중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노년에 특히 권장할 만한 취미"라고 소개했다.

지도사범을 맡고 있는 나천택 동문은 "중학교 2학년때 문방구에서 산 모눈 방 공책에 19로 사방의 사각형을 만들어 제 짝궁과 함께 흰 동그라미, 검은색 동그라미로 사각형 판을 채워갔던 것이 제 바둑인생의 시작이었다"며 "이후 학교 가방을 맨 채 친구와 같이 동네 기원을 다니며 바둑은 제 인생의 취미가 됐다"고 전했다.

나 동문은 "바둑은 엄격한 규칙과 예절 그리고 생각과 결단 등으로 바둑 한 판에 거대한 전투의 시말을 담는 전략과 전술의 도모가 있으며, 포석 단계와 중반전 그리고 끝내기의 제반 수순을 통해 누가 더 많은 땅(집)을 차지했는가를 세어(계가) 승패를 정한다"며 "하지만 서기회는 대부분의 회원이 은퇴하였으므로 대

국과 함께 친분과 덕담을 나누는 여유로운 모임"이라고 강조했다.

바둑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세계 챔피언은 대부분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등에서 배출됐다.

최진석 회장은 "바둑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듯 한판의 바둑에 우리 인생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며 "초보자라도 나천택 사범이 잘 지도해주니 관심있는 동문들은 주저말고 연락줄 것"을 당부했다.

동문 14명이 매달 마지막 월요일 오전 10시 남가주 LA 한인타운에 있는 작가의 집에서 정례 모임을 갖는다.

취재=홍선례(음대 70)



지난 5월 11일 임춘택 남가주 총동창회장의 파사디나 자택에 모인 서기회 동문들.



서기회 동문들이 바둑 대결을 펼치고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용구 다트머스대 교수

뉴잉글랜드 동문인 김용구 다트머스대 생명공학과 chancellor교수가 지난7월3일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76세.

김 교수(공대 66학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로 유학와 이곳에서 섬유 및 폴리머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81년 UMass 다트머스의 섬유과학부 조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어소시에이트(1988년), 정교수(1993년), chancellor 교수(2003년)로 승진했다. 39년간 섬유재료와 직물에 대한 많은 강의를 했으며 특수 니트직물 디자인 및 분석, 기술 관리, 재료 및 기술, 나노 복합재료를 포함한 구조를 연구했다.

뉴잉글랜드 동문회에서는 장학위원장을 맡아 기금 지원은 물론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애를 썼으며 2023년 미국에서 서울대 이름을 빛낸 미주 동창에게 주는 모교 유홍림 총장패를 받기도 했다. 암 발병 소식을 들은지 얼마되지 않은 갑작스런 별세 소식에 뉴잉글랜드 동문들이 충격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했다. 유족으로는 스티븐 김, 프레드릭 김 씨 등 두 아들이 있다.

장례식은 매사추세츠주 웨스트포트 소재 Potter Funeral Home에서 열렸다.



간호대 원로 이송희 동문

한국 및 미국 간호학계의 원로인 이송희 동문이 지난 7월10일 펜실베이니아주 그린스버그에서 별세했다. 향년 96세.

고인은 서울대 간호학과 전신인 서울대의대 부속 간호고등학교를1950년에 졸업했으며 간호장교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바 있다.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을 세우고 제3세계에 복음 전파와 가난 퇴치, 간

호교육에도 힘썼다. 특히, 중국 연변과 캄보디아, 평양에 간호대학 과정을 설립해 전문간호사를 양성하는 등 국제보건환경 개선에도 앞장섰다. 2015년 '자랑스런 서울대인'에 뽑혀서 헌신한 일생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장례는 가족끼리 치르고 화장했다. 연락: (310) 995-3013



뉴욕 에드워드 강 동문 부부 재단 학생 9명에 각 5천불씩 장학금

뉴욕동창회 제32대 회장을 지낸 에드워드 강(사대 60) 동문이 부인과 함께 설립한 에드워드 & 인애 강 재단이 2024학년도 장학생 9명을 선발했다. 7명에게는 각각 5000달러씩,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된 2명에게는 각각 2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뉴욕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다 은퇴한 강 동문은 2017년 에드워드 & 인애 강 재단을 세워 올해로 8년째 매해 한인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89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으며 그동안 수여한 장학금 규모는 60만 달러를 훨씬 넘는다. 공식 선발하는 장학생 외에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나 자선단체 등 그의 지원을 받은 곳은 적지 않다.



강 동문은 학생들 뿐 아니라 줄리어드 음대,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 센터, 자신이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코리아 뮤직 파운데이션과 코리아 아메리카 커뮤니티 비영리단체들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ary Foundation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종신이사 참여 릴레이 전개

건강할 때 미리 해둬야 절세 · 분쟁 막을 수 있어

SNU 포럼 유산 상속 강연 지상 증계

속으로 Five Star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Award를 받았다. 이번 강연에서는 상속과 효율적인 자산 관리와 관련 Estate planning, 리빙트러스트, 유언장, 위임장 등에 대해서 다룬다. 다음은 강연 요약이다.

상속 계획이 필요한 이유

유산 상속법 변호사를 찾는 목적이 대개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자식들 간 아니면 가족 간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둘째 어떻게 하면 상속 받는 사람이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쉽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셋째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주에게 아니면 그 외에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온전히 가게 하는가, 넷째 어떻게 하면 상속 세나 증여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로 볼 수 있다.

사망 후 유산 관련 분쟁은 흔히 있는 일이다. 특히 자녀가 여럿이거나 재혼인 경우,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경우는 더 그렇다. 이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미리 해둔 경우 이런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 상속 계획을 미리 잘 해둬서 유산 상속 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예방해 두는 것이 좋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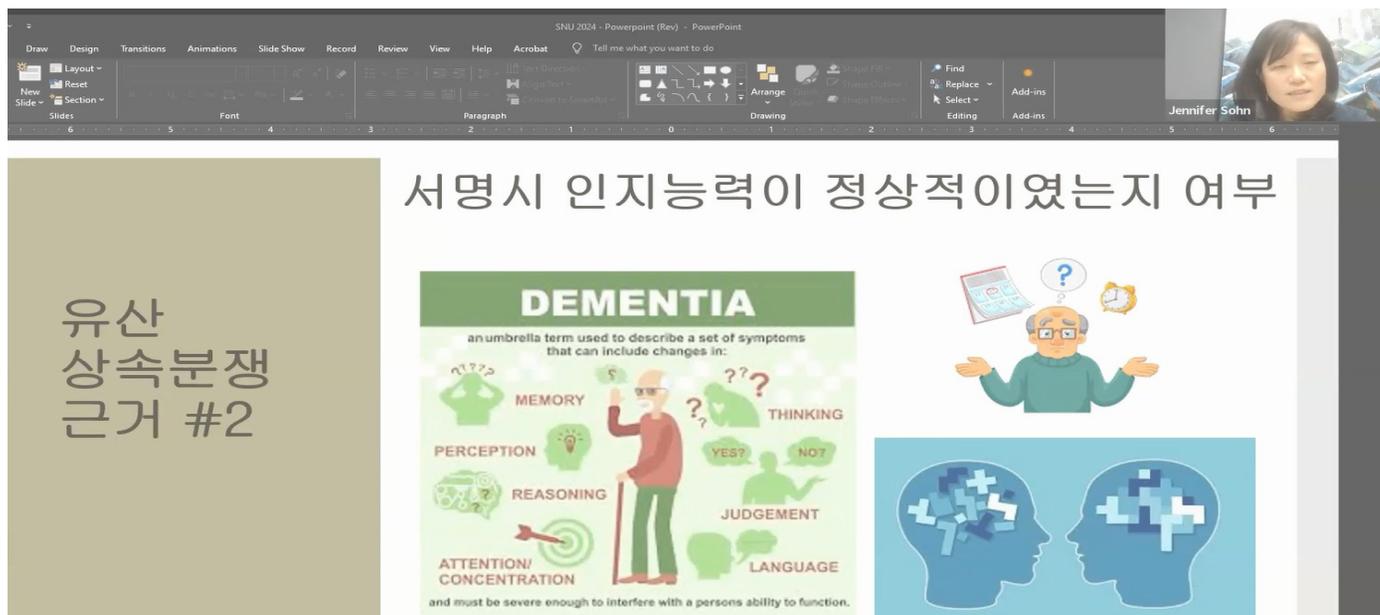
첫 번째 경우, 우선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형식이나 규정에 맞게 작성되지 않았거나 위조되었다는 근거를 통해서 무효화시킬 수가 있다. 유언장은 증인 둘 앞에서 서명이 되어야 하는 규정(Witnessed by 2 witnesses)이 있는데 형식과 규정에 맞게 작성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유언장을 해놓고 나중에 수정할 땐 어떻게 하나. 어떤 사람은 유언장에서 수정할 부분을 손으로 크로스아웃하고 이니셜 해두면 그것으로 수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유언장을 수정할 때도 작성했던 것과 같이 증인 둘 앞에서 서명해야 하는 등의 규정(formality)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

또 유언장을 그림 자필로 쓰고 서명하면 될까. 그런 자필 유언장을 영어로 홀로그래픽윌(Holographic Will)이라고 한다. 워싱턴 주에서는 자필로 쓰고 서명한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정한다. 다만 그렇게 자필로 쓴 유언장의 경우 자필이 맞는지 또 당시 다른 사람의 압박으로 작성했는지 인지 능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두 번째 경우, 고인이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작성할 때에 인지 능력이 정상적이었는지 않았다는 근거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매가 걸린 상태에서 서명했다면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판단해서 서명한 서류가 효력이 없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유언장, 트러스트, 위임장 이런 서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는 서류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미 이런 상속계획 서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치매가 걸리거나 스트로크로 쓰러지거나 건강이 급

6월 SNU 포럼에는 시애틀 총영사관 자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제니퍼 손 변호사를 초청, 유산 상속 플랜을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손 변호사는 Peterson Russell Kelly PLLC 로펌에서 유산상속법과 상법 변호사로 수년간 근무했었고,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2016년과 2017년 연



유산 분쟁 줄이려면 리빙 트러스트 필요

유언장 수정은 작성때와 같은 절차여야

가주 자필유언장 인정...분쟁 소지 많아

격히 좋지 않은 어른의 자녀의 문의가 많다. 부모님께서 직접 은행 일을 못 보는 상황이라 대신 일을 봐드려야 되는데 은행에서 위임장을 가져오라고 한다. 위임장을 써 줄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는다. 이런 경우는 위임장을 쓰기에 늦은 것이다. 법원 절차를 통해서 법적 후견인 임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선 건강할 때 유산 상속 계획을 해야 한다.

세 번째 경우,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작성할 때 위임이나 영향력을 받았다면 그것을 근거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무효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럿인데 그 중 한 자녀가 가까이 살면서 고인을 돌봐준 대가로 그 자녀에게 유산의 대부분을 남겼다고 하면 상속을 못 받았거나 적게 받은 자녀들이 고인이 부당한 영향을 받고 그렇게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는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의도를 명확하게 해두면 좋다. 예를 들어서 “둘째 자녀 철수는 지난 10여 년 간 본인을 돌봐줬으므로 둘째 자녀 철수에게 더 많은 상속을 한다”. 이렇게 의도를 명확하게 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확률이 좀 낮아진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상속 계획은 나중에 미루지 말고 건강할 때 미리 해두는 게 좋다.

요즘 이혼 또는 재혼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또 입양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상속 법률상 상속권은 크게 혈연 관계와 배우자 관계에서 생긴다. 법적으로 양자 관계의 경우 혈족 관계로 인정을 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각각 전 혼인에서 생긴

자녀가 있는 두 사람이 재혼하게 된다면 서로 상대방의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하지 않는 한 양자녀(step children)로서는 상속권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 둘이 있는 아버지가 혼자된 후 재혼을 한다고 할 때 일어난다. 아버지 별세 후 새 엄마 그러니까 양엄마(step mother)가 상속을 받는다. 그런데 양엄마가 별세했는데 자녀들은 양엄마의 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해서 지내는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장기간 동거를 하면서 결혼한 것처럼 공개적인 관계는 사실혼(커먼러메리지, common-law marriage)이다. 워싱턴 주, 캘리포니아 주 모두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혼 커플 중 한쪽이 사망해도 생존한 파트너는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권이 없게 된다.

상속계획 서류들

상속 계획의 서류로 기본적으로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 재정적 위임장, 의료 관련 위임장, 사전 의료 의향서가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장과 같은데 프로베이트(probate)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그러면 프로베이트는 무엇인가. 프로베이트는 한국말로 하면 유언 검증 절차로 법정 관할 하에 별세한 사람의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측정하고 또 파이널 빌과 세금 등을 지불하고 나머지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이다.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 유언장을 비롯해서 프로베이트의 과정 동안 법원에 등록되는 모

든 서류는 퍼블릭 레코드가 된다.

프로베이트는 주마다 법이 다르고 타주에 부동산이 있으면 그 주에서 프로베이트를 따로 해야 된다. 프로베이트는 주마다 법과 절차가 조금씩 다르다.

워싱턴 주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똑같이 150만 달러 정도 재산을 남기고 별세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워싱턴 주 프로베이트 비용이 3~4천 불 정도 들어간다면 캘리포니아 주 프로베이트 비용은 5만 6천 불 이상이 들 수 있다. 절차도 워싱턴 주에선 일단 집행자가 임명된 후엔 법원의 관할 없이 집행자가 상속을 진행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선 법원의 관할이 더 많고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린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경우 재산이 18만 불 정도 이상만 되면 리빙 트러스트를 필수로 하는 게 좋다. 반면 워싱턴 주는 비교적 프로베이트가 복잡하지 않고 또 법정의 관여가 별로 없는 주라서 리빙 트러스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는 재산 형태도 있다. 트러스트에 넣어둔 재산은 프로베이트 없이 상속이 된다. 또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명의 형태는 재산을 소유할 경우 한 사람이 별세하면 자동으로 생존한 사람이 모든 지분을 프로베이트 없이 받게 되는 재산 형태다.

그런데 부부의 경우 이런 형태로 해둘 경우에 세금 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바꾸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해 봐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때 흔한 질문은 “리빙 트러스트 재산을 다 넣어버리면 그 재산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나” “리빙 트러스트 재산을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나” 라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세워도 재산에 대한 권리엔 변함이 없다. 세금보고도 살아있는 동안은 리빙 트러

한국 이주시 준비 미흡땀 양국서 상속세 낼 수도

스트 명의로 된 재산의 소득 모두 개인 세금 보고에 그대로 하면 된다.

또 개인 소유였을 때 받은 디덕션이나 크레딧 등도 똑같이 클레임할 수 있다. 결국 재산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소유하거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차이가 하나도 없다.

리빙 트러스트의 역할은 프로베이트를 피하는 것이고 어느 주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프로베이트를 피하거나 안 피하는 것이 큰 차이가 될 수도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한 주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워싱턴 주에선 리빙 트러스트는 개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면 좋다.

또한 중요한 게 재산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예금 계좌는 어느 은행에 있는지, 모기지나 빚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지, 보험이 있는지 등 본인의 재정을 잘 정리해서 리빙 트러스트나 유언장과 같이 보관해 두어야 좋다.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은 리빙 트러스트 효력은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된 재산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 두고 실제 리빙 트러스트로 3자 명의로 이전을 해 놓거나 리빙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설정해 놓지 않으면 별세 후 리빙 트러스트로 그 재산을 이전하기 위해서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상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 형태를 LLC형태로 전환하도록 추천한다. LLC는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줄인 걸로 단어 그대로 회사 구성원들의 책임이 제한된 회사다. 어떤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LLC의 재산으로 제한이 되고 회사 구성원의 개인 재산까지 소송할 수가 없고 LLC 회사의 책임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LLC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리빙 트러스트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 LLC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부동산의 명의를 아닌 해당 LLC의 지분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리빙 트러스트로 멤버십이 제대로 양도되지 않았고 또 운영 합의(operating agreement)에도 이러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 두었다 하더라도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트러스트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한다면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해둘 수 있는지 물어본다. 채권자는 주로 제3자 뿐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다.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또 그 외에 주로 서부에 있는 한 9개 정도의 주들이 '커뮤니티 프로퍼티 법'을 따른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결혼 중 번 돈은 어느 쪽이 벌었든 상관없이 공동 재산으로 간주한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받은 사람의 개별 재산(separate property), 단독 재산이긴 하지만 결혼 중 번 돈과 섞이게 되면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녀에게 상속할 때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을 하면 실소유자가 트러스트

재혼 가정 상대방 자녀 저절로 상속권 생기지 않아

모든 재정 정보는 정리해서 한 곳에 보관하는게 좋아

상가·주택 소유시 소유 형태를 LLC로 전환하도록

트이고 자녀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있거나 이혼 소송 때도 상속 재산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게 된다.

위임장

유언장하고 리빙 트러스트는 사후에 재산 관리와 분배가 주 목적이려면 위임장은 살아있을 때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예를 들어 치매가 걸릴 경우 본인의 재정적인 일이나 건강 관련된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권한을 대리인이 대신해 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서류다.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쓰이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정적 위임장, 의료 관련 위임장 2개로 나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서 위임장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위임장을 새로 만들 기엔 너무 늦다는 점이다.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위임장이 없으면 가족들이 법적 절차를 걸쳐서 대리인을 임명 받아야 한다. 간혹 부모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상속 처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이 많다. 하지만 위임장은 위임한 부모가 살아 있을 때만 유효하다. 별세하면 위임장은 무효가 된다.

세금

연방 정부(IRS)에서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또 증여세 증여세, 상속시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런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도 주마다 법이 다르다. 워싱턴 주정부(Dept of Revenue)에선 소득세는 없지만 상속세는 부과하고 증여세도 없다. 캘리포니아 주정부(Franchise Tax Board)의 경우 소득세가 높기로 알려져 있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없다. 그래서 은퇴 후 캘리포니아로 가는 사람이 많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가 몇 곳이 없다. 워싱턴 주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이고 그 중에서도 상속세 최고세율이 20%로 가장 높다. 소득세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주들이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워싱턴 주는 특정한 규모에 자본 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연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상속세부터 살펴보면, 2024년에는 개인당 1361만 달러까지 공제됐다. 올해 상속세율은 40%였다. 임시적으로 오른 공제액은 내년 2025년까지만 유효하고 그 후엔 절반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다.

상속세는 연방 상속세가 있고 또한 주에 따라 주정부 상속세가 있다. 높은 연방 상속세 공제액에 비해서 워싱턴주 상

속세는 개인당 219만3천달러까지만 공제가 된다. 공제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 크기에 따라 10%에서 20%까지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그래서 연방 상속세는 크게 걱정을 안하더라도 워싱턴주 상속세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 많다. 유산 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자산이다. 상속세를 보고한다고 해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거는 아니다. 고인의 총 재산을 계산한 후에 고인이 사망한 해의 면제액을 공제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고인이 살아생전 증여를 하고 쓴 증여세 공제액 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또 자선 단체에 유산을 남길 시에 그 금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또 제외된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점이 면제액이 자녀의 수만큼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해다. 한국에선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의 수에 따라 면제액이 늘어난다. 그런데 미국에선 상속세 계산에 자녀가 하나 이든 여럿이든 자녀의 수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해당이 안 되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다.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다. 배우자에게 아무리 많이 줘도 상속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다. 다만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제한이 있다. 그래서 비시민권 배우자에게 상속할 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트러스트를 통해서 상속하면 디퍼(유예)할 수 있다. 둘째는 증여세를 보고할 필요 없이 줄 수 있는 연간 증여세 면제액 애뉴얼 익스클루션(annual exclusion)이다.

애뉴얼 익스클루션은 개인당 1년에 누구에게나 증여세 보고할 필요 없이 줄 수 있는 한도다. 올해는 한도가 1인당 1만 8천 불이다.

그래서 라이프타임 익센션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매해 애뉴얼 익스클루션을 활용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 개인당 1만 8천 불씩이라면 부부가 합해서 3만 6천 불, 자녀가 둘이면 그 2배로 1년에 7만 2천 불씩 증여세 보고 없이 증여할 수가 있다. 다만 애뉴얼 익스클루션은 그 해에 쓰지 않으면 누적되지 않고 없어진다.

한국으로 이주할 경우

요즘 의료 생활비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한국으로 이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것은 이중 국적을 획득해도 될지 여부다. 고민의 포인트는 이중 국적을 획득하면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내는 것에 대한 염려다. 미국에선 어디에 거주하든지 시민권이 있으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한국에선 국적 보단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

자라 할지라도 전 세계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럼 한국 거주자는 어떻게 분류되나. 한국 거주자는 한국 세법상 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한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제 한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직업이나 가족 등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이면 그 전에 미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한국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처분하고 한국에서 쓰다가 남은 금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될 것이다.

반면 이제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미국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 후에 한국 정부가 상속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이라면 이런 점을 전문가와 상의해 봐야 한다.

상속 vs 증여

여러 가지 상속세를 고려할 때 재산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팔지 않고 증여로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사망할 때까지 갖고 있다가 상속하는 게 나은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세금만 분석해보면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즉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가 발생한다. 별세 전에 기프트로 증여하게 되면 워싱턴 주는 증여세가 없지만 연방 정부에 증여세 보고를 해야 된다. 이제 증여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의 택스기준을 모두 그대로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워싱턴주 상속세는 줄겠지만 증여로 받은 입장에선 나중에 상속으로 받았을 때와 비교해 양도소득세 면에서는 조금 불리하다. 별세 때까지 갖고 있다가 상속하게 되면 연방정부 및 워싱턴 주의 경우 워싱턴주 상속세가 발생한다. 부동산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던 상관없이 택스기준이 별세한 날로 시가가 올라간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20년 전에 200만 달러로 워싱턴에서 부동산을 샀는데 가치가 올라서 시가가 600만달러가 됐다. 매각하면 차액인 400만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그리고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세 보고를 또 해야 한다. 부동산을 팔지 않고 그대로 주면 워싱턴 주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현재 시가 600만 달러로 연방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한다. 20년 전 200만 달러 가량의 택스기준이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받은 사람이 현 시가에 팔면 200만 달러부터 오른 400만달러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별세할 때까지 갖고 있다가 상속하면 받은 사람의 택스 기준은 별세 당시의 600만달러로 올라간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만약 받은 사람이 별세해서 현 시가에 팔아도 양도세가 없어진다. 대신 현 시가로 워싱턴주 상속세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와 양도세를 고려하여서 상황에 맞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분석해 볼 수 있다.

정리=장병희 편집위원

멋진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백옥자 음대 71입 ♥ 김경숙 식품영양학과 70입
원정윤 농대 89입 ♥ 이만택 의대 52입 ♥ 조무상 법학과 70입 ♥ 한귀희 회화과 68입

서울대에

천원의 식사는 학생들이 한끼 천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신의



천원의 식사에 참여하신 모든 기부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너 월에 기록합니다

이름을



지금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간단 참여신청서를 찍어 ☎ 213-435-1974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새겨



간단 참여 신청서

저 성함 은(는)

매월 기부액 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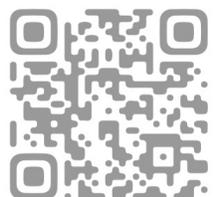
천원의 식사 후원에 참여합니다 ♥

휴대폰 번호

학과 년 입학

이 특별한 벽에 기부자님의 이름과 함께 나눔의 뜻이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모교 재학 후배님들 많이 보고 배우고 가세요”

UC 서머스쿨 공부하러 온 이음장학생 4명
남가주 동창회 환영 속 선배들 집에서 숙박

미국과 한국을 연결한다는 취지의 서울대 이음장학생 4명이 LA를 방문해 임춘택 남가주동창회장과 임원진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동문 가정 숙박 체험을 가졌다.

캘리포니아 각 대학에서 여름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온 UCLA 서머 스쿨 박진영(인문대학 인문계열 1학년), UC 샌디에고 서머스쿨 류나연(수의대 수의학과 2학년), UC 버클리 서머스쿨 박진우(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4학년), 손보람(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2학년) 4명 학생은 지난 7월 13일 로스엔젤레스에 도착해 남가주 동창회가 마련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임원진과 멘토링 선배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임춘택 회장은 “모교의 후배들과 남가주 선배동문들이 함께 자리를 하게 돼서 기쁘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캘리포니아에서의 여행 경험이 앞으로의 진로개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민자 선배로서 체류기간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음장학생들은 만찬후 임춘택 회장과 한귀희 전회장의 자택에서 숙박을 하며 선배들의 미국 개척 삶을 들었다.

14일에는 서울대 미주재단 김인종국장의 안내로 남가주 곳곳의 명소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음장학생 제도는 3년전에 시작돼 매년 선발된 장학생들이 여름방학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해 여행 연수등을 하며 미



임춘택 남가주 총동창회장(맨 오른쪽)이 엘에이에 온 이음 장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국내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이음을 추진하는 의미로 진행되고 있다.

이음장학생 제도 실시 첫 해에는 로스엔젤레스에서 오세정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유명 성악가들이 출연한 이

음음악회가 공연된 바 있다. 이 음악회에서 당시 남가주 총동창회 최용준 회장의 추진으로 3만여 달러의 이음장학금이 모금됐고 별도로 노명호 전 미주동창회장이 1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다.

한여름밤 주옥같은 노래의 향연 ‘즐기러 오세요’

남가주 서울대 동문합창단 8월 24일 공연
30여명 매주 모여 10개월 넘게 알찬 준비

남가주 서울대 동문합창단(단장 박진국·의대 65)이 오는 8월 24일 LA 다운타운소재 콜번음대 지퍼홀에서 한여름밤의 향연을 펼친다.

모두 30여명으로 이뤄진 합창단은 장진영(음대 88) 동문의 지휘로 11개의 합창곡, 독창과 중창 등 주옥같은 노래를 들려준다. 이외에도 가야금 산조 연주도 곁들여 풍성하게 꾸며진다.

박진국 단장은 “이번 정기 공연을 위해 단원들이 지난 10개월여 동안 거의 매주 한차례씩 거르지 않고 모여 강도높은 연습을 해왔다”며 “관객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자신했다.

8회 째인 올해 공연의 테마는 ‘고향’. 곡도 주제에 맞춰 선정했다. 박 단장은 “우리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는 ‘디아스포라’들”이라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음악을 즐기시는 한편 동문들끼리 교류하는 모처럼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합창단은 이른바 ‘MZ 세대’의 젊은

층도 다수 포함돼 있다. 박 단장에 따르면 음대 성악과 출신들은 물론 간호대·공대·문리대·사대·생과대·의대 등 각 단과대 동문들이 고루 참여하고 있어 단원들간의 유대관계도 매우 돈독하다.

서울대 합창단은 지난 2018년 미주에서는 유일하게 한국 국립합창단의 초청을 받아 한민족합창축제에 참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공연은 유럽 대학들의 교가라는 애칭이 붙어있는 ‘대학축전서곡’(Gaudeamus Igitur)으로 막을 연다. 이어 슈베르트의 ‘음악에게(An Die Musik)’, 장 폴 마티니의 ‘사랑의 기쁨(Plaisir D’amour)’, 파올라 토스티의 ‘세레나데(La Serenata)’ 등 친숙한 노래들을 합창으로 편곡해 선사한다.

김동석(음대 64) 동문의 가야금 산조 독주에 이어 합창단이 다시 무대에 올라 ‘님이 오시는지’(박문호 작시, 김규환 작곡)와 ‘수선화’(김동명 작시, 김동진 작



남가주 서울대 동문합창단의 지난 공연 모습.

곡)를 선사한다.

2부는 소프라노 김수정이 오페라 노르마(Norma) 중 하이라이트인 ‘정결한 여신이여(Casta Diva)’와 ‘새타령’(박희경 작시, 조두남 작곡)을 부른다. 이어 소프라노 김주혜와 테너 이규영이 보컬 듀엣으로 나와 ‘가장 아름다운 노래’(김효군 작곡)를 들려준다.

보컬 앙상블도 이날 무대에 오른다. 소프라노 박영, 조은아, 김주연, 김주혜와 테너 이규영, 베이스 장진영 등 앙상블

은 푸시킨의 명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김효군 작곡)를 선사한다.

마지막 순서로 재즈 앙상블이 등장해 재즈 음악의 진수를 선보인다.

티켓은 20달러(도네이션).

한편 합창단은 동문들의 기부 또는 프로그램에 게재할 광고를 접수하고 있다. 합창단은 국세청(IRS)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어 기부금(광고 협찬 포함)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 380-3366

원고 모집합니다

-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17@gmail.com 로 보내주시시오.





지난 6월22일 부세 우즈에서 열린 야유회에 모인 시카고 동문과 가족들.

96세 선배님까지 ... 동문 · 가족 100여명 웃음 가득

시카고

울창한 숲 속 야유회 싱얼통 · 노래 경연에 년센스 퀴즈 즐거워

지난 6월 22일 울창한 숲과 호수가 있어 푸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부세 우즈(Busse Woods)에 시카고 동문과 가족 100여 명이 모여 뜻깊은 야유회를 가졌다.

개인 사정으로 그동안 참석이 어려웠던 김호범 동문(상대 69)이 아침 일찍부터 야유회 장소에 나와 음향 시스템과 발전기를 설치하며 행사 준비에 앞장섰다. 야유회 장소가 구석진 곳이라 봉윤식 총무(사회대 96)와 그 가족들이 공원 입구부터 안내판을 설치하여 참석하는 동문들을 따뜻하게 맞으며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황찬주 동문(인문대 84)과 김수현 동문(생활 98)은 현장 등록과 안내를 맡아 참

여한 동문들을 반겼다.

조규승 회장(문리 72)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 직접 참석은 못했지만 원격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정성일 차기 회장(공대 86)이 2024년 야유회 개최 선언을 하였다.

오전 11시30분 구경희 동문(의대 59)의 힘찬 선창으로 서울대 교가를 함께 부르며 2024년 야유회를 시작했다. 이어 새로 참여한 동문들의 소개 시간을 갖고 서로 친목을 다졌다. 최근 시카고로 이주하여 외로움을 느꼈던 이건홍 동문(공대 75) 부부와 음대 동문들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즐거운 분위기를 더했다.

일리노이주 롤링 메도우즈의 날씨는 화씨 91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로한 선배님들의 건강이 염려되었지만, 예상보다 시원한 바람 덕분에 상쾌한 기분으로 동문들과 대화를 나누며 준비된 도시락과 음료를 즐길 수 있었다. 96세로 최고령이신 송재현(의대 46) 선배님께서서는 회고의 말씀을 통해 동창회의 미래를 격려해 주셨다.

도시락 식사 후 이영우 동문(문리 66)의 시범에 따라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고 싱얼통을 맡은 이소정 동문(음대 84)은



서바이벌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동문들.

60년대 한국 대중가요 등 23곡을 준비하고 동문들의 노래 실력을 겨루게 하여 웃음 가득한 시간을 선사했다. 싱얼통 시간에는 덤으로 QR 코드를 배워가는 유익함도 있었다. 김훈태 동문(사회 84)은 준비된 년센스 퀴즈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동문들에게 기념품을 나눠주며 즐거움을 더했다.

2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따뜻한 정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동창회 야유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의 담소는

웃음과 추억으로 가득했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과 그리움을 확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야유회 이후에도 시카고 동창회의 끈끈한 정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월 10일에는 시카고 근교 라비니아에서 음악 동아리 모임이 열리고 10월 13일에는 시카고 한인문화원 비스코홀에서 시카고 동창회 주최 가을 음악회가 개최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글=이준수(공대 76)
사진=홍청일(약대 57)

골든클럽 숲 트립 50명 동문이 함께한 즐거운 추억

밀워키 동물원을 시작으로 강파라 크루즈 · 버스투어도

지난 7월 2일 화요일 시카고 지부 골든클럽은 60대에서 90대까지의 동문 50명이 참여하여 연례 Short trip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Short trip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도시락을 싸들고 밀워키 카운티 동물원을 방문하며 시작되었다.

동물원에서 다양한 동물들과 특별 전시물을 관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참가자들은 미시간 호수와 밀워키 강을 따라 Edelweiss River Cruise를 즐기며, 재미있는 밀워키의 역사를 배우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했다.

또한 Stone Creek Coffee Shop에서 소나기를 피하며 나누는 맛있는 커피와 환담, Milwaukee Art Museum photo zone 등에서 추억에 남는 경험을 했다.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동문들의 재능과 덕담으로 구성된 on-bus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짧지만 알찬 하루를 보내며 서로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

시카고 지부 골든클럽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동문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아직 골든클럽에 참여하지 않으신 동문 여러분께서는 매달 첫째 목요일에 열리는 월례회에 적극 참여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취재=김영원 총무(사대 67)



시카고 골든클럽 동문들이 지난 7월2일 밀워키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밀워키 강을 따라 크루즈를 즐기는 동문들.

조지아 동창회 새 회장에 최화진 동문

“더 재미나고 돈독한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최선”

24대 임원진 구성 마쳐 10월 19일 가을 야유회

서울대 조지아 동창회 24대 임원진이 새로 구성됐다. 24대 회장은 최화진(음대 85) 동문이 맡게 됐고 부회장은 김인구(동물자원과학과 87) 동문과 장승순(섬유공학 88) 동문이 선임됐다.

조지아 동창회는 지난해 송년모임 이후 한동안 회장이 공석이였지만 지난 7월 13일 전직 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동문들이 들루스에 모여 임시 총회를 열고 새 임원진 구성을 마치게 된

것이다.

새로 동창회장이 된 최화진 동문은 음대 기악과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으며 미국서 박사를 받고 현재 테네시주 애쉬빌에 있는 UNC Asheville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부회장 김인구 동문은 상속법 전문 변호사이며, 장승순 동문은 조지아텍 재료공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

최화진 신임 회장은 “주중광-허지영

박사 내외를 비롯해 김종구, 이영진, 강창석, 임한응 선배 등 여러 전직 회장님들이 격려해주시고, 또 후배들도 적극 응원해 주어 중책을 맡게 됐다”면서 “오는 10월 19일(토) 가을 야유회를 비롯해 조지아 동문들이 더 재미나고 돈독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회장 부회장 외에 24대 조지아 동창회를 위해 함께 봉사해 줄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총무 박근우(식품공학 89), 이수광(화학 90) / 회계 박상혁(섬유공학 92) / 서기 김승범(언론정보 96) / 기획부장 서동준(건축 94).



조지아동창회 24대 최화진 회장

이종호 동문 ‘조지아 애틀랜타 백과’ 출간

한인 15만명 넘는 대표적 성장지역

조지아주에 대한 세 번째 종합보고서

이종호 동문(동양사학과 81)이 미국 조지아주 종합 가이드북 ‘조지아 애틀랜타 백과’ (포북출판사, 2024)를 출간했다. 지난 2021년부터 애틀랜타 중앙일보 대표로 재직 중인 이 동문이 조지아 부임 후 세 번째 펴낸 이 책은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조지아주에 대한 일종의 종합보고서다.

현재 조지아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부쩍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 성장 지역이다.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으며 최근 캠프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도 밀접하다. 한인 인구는 이미 15만 명을 넘어 20만 명도 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혹은 타주에서 조지아주는 여전히 변방이고 낯선 땅으로 여겨진다. 변변한 소개 책자 하나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관련, 이종호 동문은 “조지아주에 대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편견과 이해 부족을 덜어 보고자 이 책을 기획했다”면서 “그동안 신문에 실렸던 조지아주 관련 기사 중 필요한 부분을 모아 수정 가필하고, 일부는 다시 썼다, 생생한 현장 사진 사진과 다양한 도표를 대폭 수록함으로써 가독성도 크게 높였다”고 밝혔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된 본문은 조지아주의 과거와 현재 탐구 뿐 아니라 애틀랜타를 비롯한 주요 도시별 현황과

특징, 생활 및 이주 정보, 교육 및 학군, 부동산, 여행 및 레저 정보 등이 꼼꼼히 담겨있다. 한인들이 즐겨 찾는 식당, 마켓, 쇼핑몰, 병원, 도서관 등 급성장하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 주변 소개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종호 동문은 “이 책은 한때 남부제국으로 불렸던 조지아주가 요즘 왜 이렇게 뜨고 있는지를 설명한 일종의 답안지”라면서 “애틀랜타 한인은 물론, 조지아주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이민자나 타주 한인들, 유학생, 주재원 모두에게 유용한 정착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일독을 권했다.

책은 한국에서 먼저 출간돼 교보문고나 예스24, 알라딘 등에서 절찬리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에선 애틀랜타 중앙일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총 304페이지, 4x6배판, 전면 컬러, 정가 20달러. 애틀랜타 중앙일보 무료 이메일 뉴스레터 ‘미리 보는 중앙



역원이 이종호 동문이 ‘조지아 애틀랜타 백과’ 책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일보’ 구독 신청 시 5불 할인해 준다.
▶문의 : 770-242-0099 (Ext.2013)
장병희 편집위원

시카고 10월 13일 가을 음악회

한인문화원 비스코홀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가 오는 10월 13일 가을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최근 새롭게 개관한 시카고 한인 문화원 비스코홀에서 열려 더욱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비스코홀은 시카고 한인들이 힘을 모아 건립한 3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으로, 한인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에서 전문 연주자 및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 음대 출신 연주자들의 멋진 공연으로 더욱 풍성하고 감동적인 음악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창회 측은 “후배 동문들의 멋진 연주를 응원하고, 오랜만에 모이는 동문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며 가을 음악회를 더욱 빛나는 행사로 만들어 달라”



며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참가 방법: 티켓 구매/구글 설문지 참여: <https://forms.gle/U13FB47GrCfLop7p7>

▶문의: 서울대 시카고 지역 동창회 이메일 snuaachicago@gmail.com

어린이 그림책 작가 염혜원 동문 보스턴글로브 혼북 어워드 수상

뉴욕에서 활동 중인 그림책 작가 겸 일러스트레이터 염혜원 동문(미대 서양화가)이 그림책 부문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보스턴글로브 혼북 어워드’를 수상했다.

염 동문은 그림책 ‘맘소사, 나의 나쁜 하루’로 켈시 린 윌리스와 함께 그림책 부문 명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윌리스 작가는 이 책의 글을, 염 작가는 그림을 각각 맡았다.

1967년 제정된 보스턴글로브 혼북 어워드는 ‘혼북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주관해 소설과 시, 논픽션, 그림책 등 세 부분에서 각각의 수상자(Winner)과 명예상(Honor)을



선정하며, 아동 및 청소년 문학계에서 권위를 가진 상이다.

염 동문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관화를 공부했다. 이후 뉴욕 스크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 볼로냐 라가치 픽션 우수상, 에스라 잭 키츠 상, 샬롯 졸로토 상 등 아동 그림책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여럿 수상한 바 있다.



알함브라 궁전의 정원.



마드리드에 있는 맛집엔 한국 노래가 연주되고 한국말 메뉴판도 있다.



마드리드 왕궁내 거대한 식탁.

걸어서 800km ... 버르고 별렀던 그 길을 드디어 나섰다

제영혜 동문의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기

5월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다. 제 동문은 페이스북(www.facebook.com/profile.php?id=1235774340)에 저널 형식으로 매일 여행기를 연재했다. 2회에 걸쳐 제 동문의 여행기를 소개한다.

많은 사람이 버킷리스트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이다. 세계 일주만큼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남가주 제영혜 동문이 지난

처음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 알게되고 막연하게 나도 한번 다녀와야지 하고 생각한지가 거의 20년 정도 된 듯하다. 그러다 한 6~7년 전 쯤 등산반에 가끔 얼굴을 비치는 후배 부부가 다녀왔다는 얘기를 듣고부터 내 버킷리스트의 하나가 된 이 길.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같이 갈 친구를 물색하느라 세월 다 보내고 마침내 혼자라도 가자 용기를 내었더니 때맞춰 펜데믹이 터져 쫑쫑 묶여있다가 올해 더 이상 미루다간 내 다리 힘을 내가 못 믿겠기에 꼭 갔다오자 마음을 굳혔다.

유럽의 여러 길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도착하는 이 순례길은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성야콥의 시신이 묻혀있는 성지로서 많은 가톨릭 교인들이 종교적 의미로 시작한 순례길이었지만 지금은 800km를 걷는 도보여행으로 상업화되어 이 길을 함께 걷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고 40일 이상을 혼자 걸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는 의미가 더 크다.

나이 70이 넘어 하루에 평균 15마일 씩을 걸어야하는 이 고행의 길이 스스로 부담되고 두려웠던 모양인지 년초에 티켓팅을 끝내고 근력을 보강하기 위해 주말마다 적어도 12마일 이상인 산을 오르면서 체력을 연마했는데 하루에 한두 번씩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답답함과 통증이 나타나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 CT까지 찍고 별짓을 다한 준비기간을 거쳤다.

일행들을 만나기 일주일 전에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도착한 나는 몇몇 이름 있는 도시들을 돌아보며 시차 적응을 하고 몸과 마음을 순례길 여정에 최적화시킬 생각이었다.

첫날

숙소에 짐을 풀고 시내 한복판 광장으로 나갔더니 오늘이 마침 이 나라의 노동절 연휴란다. 광장이 발 디딜 틈이 없다. 세상 곳곳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이 무리지어 거리를 활보한다. 난 물어볼

어 미리 소문으로 들은 맛집 하나로 향함.

와! 기대에 부응하는 맛있는 음식들과 미어터지는 손님들로 분위기는 들썩들썩. 게다가 생음악 키보드 연주가 흥을 더 돋군다. 그러다 갑자기 귀에 익은 한국음악이 흐른다. 먹다 말고 돌아보니 나에게 손짓까지 하시며 이어 그 유명한 김범수의 “보고싶다”가 흘러 나온다.

여행 첫날이니 아껴 써야 할 돈이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거금 팁을 드렸더니 어머니 정말 이번엔 장윤정의 “어머나”가 울려 퍼진다. 기다리는 손님들이 하도 많아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도 이 연주자가 이어 “광화문 연가”를 또 연주해 주신다. 대한민국 대단하단 걸 다시 또 실감한 날이다. 얼마나 한국사람이 많이 찾아왔으면 저렇게 한국 노래들을 연주할까!! (메뉴도 한국말로) 일어서면서 정말 감사해서 또 팁을 넣었다. 내 평생 한 서비스에 두 번 팁 놓기는 또 처음!

둘째날 벌써 사고치다

오늘은 프라도 미술관과 마드리드 왕궁을 볼 계획이다. 미술관 입장권을 사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무려 한시간반, 미리 예매할 수도 있었지만 혹 그 시간을 맞추려고 애쓰게 될까봐 안하고 왔더니 후회스럽다. 하기가 티켓 손에 들고도 입장하려는 줄 마저 비슷하게 길에 그나마 좀 위로가 된다. 위



제영혜 동문이 헤밍웨이가 자주 찾았다는 팜플로나의 카페 이루어를 찾았다.

낙 그림 보러 미술관 가는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다 상설전시관 100개의 방에 걸려있는 그림이 1800점이상이다보니 대충 눈요기만 하고 특별전에 있는 고야의 작품들만 좀 자세히 봤다.

6시에 닫는 왕궁도 봐야해서 부지런히 택시로 이동. 또 줄 서다. 종일 기다리는 수행을 하는 기분이다. 문닫기 1시간반 전에 겨우 입장. Charles 3세가

살던 궁. 유럽이 그렇듯 역시 1800년대에 지은 궁이 참으로 거대하고 실내 장식이 정교하면서도 거창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특히 방마다 천정에 그려져있는 작품은 경이롭다. 그 시대 우리 조선의 삶을 생각하면 초라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이지만 작금의 발전을 생각하며 애써 위안을 한다.

궁은 그라나다에 가서 또 볼거라 사진도 안 찍고 구경만 하다 다이닝룸의 규모에 놀라고 그 다음 식기며 그릇들 장식해 놓은 방에 이르러 예쁜 그릇들에 시선을 빼겨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어 한장만 찍자했다 낭패. 구도 잘 잡아 잘 찍어보려고 45도 각도로 오른쪽으로 한발 한발 물러서는데 갑자기 앙칼진 폭음과 “우”하는 사람들 소리 그 뒤로 내가 그 소리들의 제공자였다는 사실을 발견. 아픈 것도 모른채 왜 젊은 남자가 내민 손 덩씩 잡고 일어나긴 했는데, 수많은 방들마다 이음새 하나 없는 양탄자가 다 깔렸더니 하필이면 이

방만 차고 딱딱한 타일 그대로라니, 내 두 무릎과 왼쪽 손목, 오른쪽 팔과 어깨가 완전 고난을 치렀다. 더이상 접근치 말도록 밧줄 쳐 놓은 그 줄에 걸려 넘어졌고 그 받침대가 마침 금속성이어서 그게 쓰러지며 낸 굉음였다.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다 했고 가져온 약 있는데로 다 바르고 먹고 했는데도 갈수록 더 아프다. 초장부터 이게 왜 날벼락?

셋째날 Feast of the Cross

마드리드에서 기차로 4시간 남짓 걸려 그라나다로. 왜 복인지 어제는 마드리드 시의 축제날이라더니 오늘 그라나다에 도착하니 오늘이 이 도시의 “Day of the Cross”라는 축제날이란다. 광장마다 꽃장식된 대형 십자가 아래 제단을 만들어 형형색색 꽃들과 정성어린 제물들로 장식해 놓고 스피커에선 신나는 음악이 광광 축제 분위기를 돋우면 너도 나도 음악에 이끌려 삼삼오오 모여 전통춤을 추어댄다.

거리엔 전통의상을 멋있게 차려입은 여인들로 활기가 넘친다. 나도 덩달아 몸이 반응을 하니 이게 주책인지 생판 모르는 스페인 여인들과 어울려 나도 국적없는 춤을 춘다. 이런 분위기 너무 좋다. 기대도 않은 시간들이 알차게 흘러간다.

넷째날 시에라네바다가 내 눈앞에

내가 사는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줄 알았던, 남북으로 400마일 동서로 50마일 그중 1만 ft 이상 봉우리가 무려 40개 이상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스페인에도 있다니... 오늘에서야 안 사실은 시에라네바다가 “눈덮힌 산”이란 뜻이란다. 비교적 더운 이 그라나다의 5월에 흰눈덮힌 산을 볼 수 있음이 신기하다. 여기도 가장 높은 봉우리 Mulhacen이 1만 1414 ft 라 한다. 눈앞에 보이는 하얀 눈덮힌 긴 산능선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다.

낮엔 알함브라를 5시간 정도 걸려 구경했고, 일몰시간이 9시8분이라 산꼭대



하얀 눈에 덮힌 스페인의 시에라네바다 산맥.



세비야 시내에 있는 플라자 데 에스파냐 광장에 타일로 조각된 각 지역별 문양.



순례길의 상징인 조개비와 노란 화살표.

마드리드 · 그라나다 · 세비야 돌며 몸과 마음도 '준비 끝'

기에 있는 San Nicholas 전망대를 가려했으나 마침 마라톤대회가 그 시간에 겹쳐 길을 통제하는 통에 포기했다.

Sun set 광경이 훌륭하다는데 못 가봐서 아쉽다. 남은 시간을 알뜰히 보내기 위해 난 플라멩고 쇼 장소로 행선 변경.

한마디도 못 알아듣지만 우리네 창 같은 삶의 애환과 한이 느껴지는 슬픈 곡조가 날무겁게 짓눌른다. 이를 전 넘어져 시원치 않은 몸으로 난 과연 이 행군을 해낼 수 있을까 생각이 미치고 또 아련히 걱정이 앞선다.

다섯째날 그라나다 대성당과 대낮 San Nicholas 전망대

미사 본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못하는 엉터리 가톨릭신자인 내가 그라나다 대성당에서 미사를 보게 되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Spanish 였지만 눈치로 대충 따라하고 영성체 시간에는 앞으로 나가 신부님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아주 잘 투자한 한시간이었다.

그리곤 어제 못본 Sun set 황홀경이 자꾸 아른거려 대낮이지만 올라가보기로 작정. 성당에서 1.4km밖에 안 된다고 나오는데 의외로 힘든 코스였다. 집들이 뻑뻑히 들어선 가파른 언덕길을 집 사이사이로 요리조리 끼고돌아야해서 Google GPS 손에 들고도 어디로 가라는 건지 몰라 헤메기도 했다. 여긴 아예 길 이름이란 건 보이지 않으니...주소 하나면 어디든 쉽게 찾을 수 있는 미국이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이다. 겨우 겨우 목적지에 닿으니 완전 축제장이네. 기타치고 노래하는 그룹도 있고 산 꼭대기에도 타파스와 맥주로 대낮부터 흥청흥청. 이 사람들은 술마시는데 시도 때도 없다. 해는 9시 넘어 지고 밤 한 시까지도 다 밖에서 먹고마시고.. 대체 언제 집에 가서 자고 언제 일하러 가는 지 알 수가 없다.

오늘로 그라나다는 이별, 세비야로 저녁에 떠난다.

여섯째날 세비야 시내를 돈 후 Plaza de Espania 구경

내일 드디어 순례를 위해 한국에서 오는 일행과 마드리드에서 만나야 하니 오늘이 마지막 관광의 날이다. 세비야에서의 단 하루 부지런히 이곳저곳 가봐야해서 맘이 바쁘다. 세비야에서 할 수 있는 즐길거리의 기본은 단연 아름다운



그라나다의 축제일인 '십자가날' 거리 모습.

날씨, 오렌지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가 시내 한복판에 늘어져있어 향기로운 오렌지 향내가 뽐뽐. 마침 5월이라 캘리에 많은 자카렌다의 보라빛이 거리의 가로수로 그 거만한 자태를 뽐내고 있고,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피부로 느껴지는 여유로운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다. 무대하르라고 알려진 무슬림과 유럽 건축 스타일의 조합은 남부 스페인의 독특한 양식으로 세비야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요소이다. 특히 정교한 타일로 된 작품들이 내 눈을 사로잡았는데, 거리의 벤치도, 건물 올라가는 계단과 손잡이에도, 가로수 등에도, 건물 외벽등등 아름다운 타일조각들이 다 예술품이다.

플라자 데 에스파냐는 세비야 중심부에 있는 아름다운 랜드마크로 도시의 건축 양식을 반영하여 1992년에 EXPO를 위해 건축되었다고 한다. 둥근 아치 형태로 분수가 광장을 흘러가고 그늘을 드리운 파빌리온이 서 있고, 스타워즈와 아라비아의 로렌스 같은 영화에 등장하기도 해 우리 눈에 낯설지 않은 장소이다.



오후엔 세비야 대성당엘 갔는데 그 규모가 정말 대단해서 여태 본 성당은 기억에 남을 것 같지가 않다. 35층 종각까지 걸어서 올라가게 되어있었는데 그 옛날 종지기가 힘들게 올라가 종을 쳤을 장면이 떠오른다. 올라가는데 요즘 날 겁나게 만드는 가슴통증이 또 나타나 몇번이고 쉬어가며 겨우 오르다. 그 높이에서 본 세비야 시내 정경은 또 색다른 맛이였다.

일곱째날: 마드리드서 일행 28명과 만남

짧았던 세비야에서의 시간을 접고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하는 일행을 만나기 위해 마드리드행 기차에 몸을 싣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지 설레이는 맘으로 먼저 도착한 난 마중 나온 사람들 사이에 끼 서서 초조한 맘으로 하염없이 기다린다. 먼저 한 여자분이 현지 가이드라며 이영혜씨냐고 물어온다. 휴 이제 안심.

28명 중 두분은 가이드이고, 순례객은 26명인데 거의 모두 여자여서 깜놀람. 다섯 부부팀과 남자끼리 온 두분이 보이고 나머진 다 혼자 온 여자였다. 말을

나누게 된 한 여자분께 왜 혼자 왔냐했더니 "혼자 다닌지 15년 됐어요. 혼자가 편해요. 남편은 돈 벌어야 해서 제가 여행하죠"라고 한다. 떠나 오기 전 몇몇 친구들이 기대해 보라고 혹 근사한 혼자 온 남자도 있을거라 한 말들이 스쳐지나가 실소를 금치 못한다. 무슨 복에 여태 없던 기적같은 일이 생긴단 말인가? 까미노의 출발지인 생장을 향하기위해 오늘은 팜플로나까지 버스로 이동한다. 5시간 소요.

가이드 언니의 재치와 노련함에 감사히 지루하지 않게 스페인의 북동쪽 끝까지 달려오다. 첫밤을 기대보다 훨씬 낫은 호텔에 묵었고, 오는 길에 들린 1.5유로짜리 커피도 넘 맛있고 와인 곁들인 저녁식사도 너무 훌륭해서 기분이 좋다. 가슴 통증은 분명 하루에도 한두번씩 있는데 심장은 멀쩡하다니 다음으로 의심되는 역류성식도염을 걱정하는 내게 먹어선 안되는 리스트 중 적포도주와 토마토가 있던데 계속 먹고 있으니 우짜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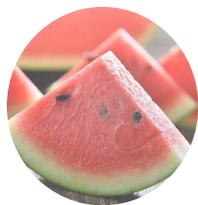
내일은 팜플로나와 생장 시내를 구경하며 슬슬 걸을 준비하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

여덟째 날: 헤밍웨이가 사랑한 팜플로나엔 산페르민 축제

카스티요 광장에 들어서면 딱 눈에 띄는 카페 "IRUNA"가 있다. 헤밍웨이가 스페인에 올 때마다 거의 팜플로나를 들리고 또 카페 이루냐에서 쉬며 사색한 걸로 유명한 카페.

그런가하면 팜플로나하면 투우를 빼놓을 수가 없다. 해마다 7월6일이면 산페르민 축제가 열리는데 그 열기는 굉장하단다. 800미터 정도 구간의 6미터 좁은 길(TV 중계로 볼땐 꽤 넓은 길인가 했는데 실제로 보니 약 6미터 너비)을 성난황소와 함께 달리는 Encierro는 팜플로나의 자랑이자 그 자체이다. 7그 길의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발코니 보수공사를 하고 그 주간 렌트로 돈 벌 계획에 들떠있다고. 저녁행사인 투우경기도 소가 죽어야 하는 경기인 만큼 동물사랑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산페르민 축제에 언젠가 한번 빨간 옷을 차려입고와보고싶다.

아홉째 날 드디어 순례길 대장정의 첫날 (다음호에서 계속)



더운 여름, 수박 드시며 건강 챙기세요 고혈압 관리, 눈건강, 피부 미용에 좋아

마켓에 가면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여름 과일 수박은 언제나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여름이면 원두막에 모여 수박을 먹었다. 그저 더워서 시원해지려고 먹었지만 이것이 알고보면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퍼푸드였다. 수박에는 다른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에서 찾을 수 없는 일부 영양소를 포함해 나이가 들수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연구가 있다.

1. 혈압을 낮춘다.

아미노산인 L-시트룰린은 혈관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21년에 수박과 시트룰린이 심장 대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비교했다. 8개의 논문에서 혈압을 조사했는데 이중 7개는 수박 과육, 주스 또는 추출물을 섭취하는 것이 혈압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혈액이 흐르도록 확장하고 뻣뻣하거나 흐트러지지 않는 유연한 혈관이 되는 것을 돕는다. 고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약간의 칼륨을 제공하여 나트륨 과다로 인한 혈압 상승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

2. 피부가 더 젊어 보이도록 돕는다.

수박에는 토마토를 붉게 만드는 식물 화합물인 리코펜이 풍부하다.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 리코펜은 신체 내부와 피부 모두에 이점이 있다. 심지어 리코펜으로 만든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할 수도 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토마토

를 물질의 최고의 식품 공급원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루비색 수박은 생토마토보다 40% 더 많은 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식물성 영양소는 유해한 광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한다. 수박을 두 번째 방어선, 즉 내부 방어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리코펜과 비타민 C는 피부를 젊어 보이게 유지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며 콜라겐을 지원해서 잔주름과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눈을 보호한다.

당근과 마찬가지로 수박은 노화 관련 황반 변성 및 백내장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 리코펜: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은 황반 변성 위험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백내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비타민 C: 보충제가 아닌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을 통해 비타민 C를 섭취

하는 것은 백내장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

· 루테인과 제아잔틴: 영양 저널에 발표된 2022년 연구에서 5만명이 넘는 미국인의 데이터를 조사결과, 루테인과 제아잔틴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눈 건강에 중요하다.

· 비타민 A: 수박은 또한 당근에 시력 강화제라는 평판을 주는 영양소인 비타민 A를 일부 제공한다.

4. 식습관 개선.

수박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과일의 92%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H2O 덕분에 두 컵 분량의 칼로리는 90 칼로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수많은 영양소의 풍성한 부분을 제공한다. 식단에 수박을 추가하면 전반적으로 더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다.

영양 저널에 발표된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수박을 먹은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한 식단을 갖고 있다. 건강에 해로운 지방을 덜 섭취하고 설탕을 첨가했으며 섬유질,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A 및 C

와 같은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했다. 리코펜과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제가 더 많다.

5. 수박 껍질과 씨앗은 섬유질과 영양분을 더한다.

사람들은 수박의 붉은 부분만 먹는다. 그러나 사촌인 오이와 마찬가지로 수박의 모든 부분은 먹을 수 있다. 멜론의 무려 40%를 차지하는 껍질을 먹으면 몇 가지 중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박 껍질에는 수박 과육에 비해 설탕이 적고 섬유질이 10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 또한 혈압을 낮추는 시트룰린을 50% 더 많이 제공한다. 수박 껍질 추출물은 껍질 자체를 먹는 것과는 다르지만 암과 싸우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박씨의 경우 검은색 씨앗이 많은 것을 함유하고 있다. 껍질보다 섬유질 함량이 훨씬 높으며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모두 함유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씹어먹어야 한다.

장병희 편집위원

사회적 참여 활동 부족해도 빨리 늙는다

새롭게 밝혀진 노화 요소

장수를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시니어들은 다 안다. 전국은퇴자협회는 최근 노화를 촉진하는 여러가지 요소를 공개했다.

자주 인용되는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사회적 연결이 부족하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 활동이 아예 없거나 비만인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긴밀한 유대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신체가 만성적인 피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아울러 '생활 공간'이 작아질수록 수명은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활 공간은 자신이 방문하는 모든 지역, 모든 장소다. 어떤 사람에게든 삶의 공간이 집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야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한다.



지난 5월 열린 필라델피아 동문 골프대회에서 즐겁게 대화를 하며 경기를 준비하는 동문들.

비만은 제2형 당뇨병, 심장병 등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체중이거나 체중을 많이 감량하는 것이 항상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

히려 약간 체중을 늘리는 것이 노년엔 인체를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2023년 논문에서 중년부터 이후 성인(40~84세)에 비만에서 정상으로 변한 사람들이 비만을 유지한 사람들보다 생물

학적으로 더 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노년기의 체중 감소가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며 노쇠 및 기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노화와 관련된 혈액 생체 지표를 조사한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녹지 근처에 살면 수명이 평균 2.5년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녹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저자들은 약 1000명의 도시 거주자로부터 20년 간의 데이터를 평가한 결과 공원 및 기타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후생적 노화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자연에 접근할 수 없는 매우 도시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확실히 생물학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과 잠재적인 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내 삶을 이끈 기본 철학은 “진리는 나의 빛”이었다

(VERITAS LUX MEA)



김현영
(수의대 58)

1975년은 서울대가 세계적 대학으로 변하는 변곡점

모교 유흥립 총장은 서울대 총동창회 이경형 상임부회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서울대학교는 2025년에 관악캠퍼스 종합화 50주년을 맞으면서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 혁신사업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 총장은 서울대 총동창회 신문 2023년 3월 540호에서도 “1975년은 서울대 종합화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시점입니다. 1975년 관악 이전은 하드웨어 종합화이며, 50주년을 맞는 2025년은 소프트웨어 종합화”라고 강조한 것을 보았습니다.

1975년은 서울대의 흩어져 있던 대학들을 관악 캠퍼스 한 공간으로 모아 종합화 하면서 세계적 종합 대학교로 발전하는 역사적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는 장박으로 오로지 푸른 바다만 보이는 배안 조용한 호텔방에서 서울대가 1975년을 기점으로 지난 50년간 세계적 대학으로 변천하는 역사와 또한 졸업생으로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재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1971년 한국을 떠났기에 1975년 서울대의 관악 캠퍼스 종합화에 대한 역사적 중요성을 잘 몰랐었는데 이번 크루즈 여행을 통해 새롭게 발전한 서울대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를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1946년 해방 이후 한국 최초의 종합대학인 서울대학교는 기존에 있던 여러 학교들을 통합 설립되었기에 서울 곳곳에 단과대학이 개별적으로 위치하여 각각의 독립적 성격을 띠워 종합대학으로 일체감이 없는 느슨한 연합체로서, 또한 동일과목과 시설들이 단과대학별로 중복 설치되어 교육운영상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학문의 교류와 발전에 걸림돌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정체성을 상징하는 정문 조형물

1975년,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가 관악에 자리잡으면서, 서울대학교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샤’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정문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국립서울대학교’의 초성 ‘국, 사, 대’의

서울대 미주동창회 크루즈 평의원 회의를 다녀와서

지난 6월 열린 제 33차 서울대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종신이사로 참여하면서 좋은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일주일간 크루즈 선상에서 미국 각 지역에 거주하는 각 단과대학 출신 동문들과 모여 동창회와 모교를 위하여 의논하는 뜻깊은 모임이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접어서 유학 와 각 전문 분야에서 성공하여 미국과 세계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있는 훌륭한 동문들과의 대화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더욱이 서울대 로고의 내용,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을 다시 공부하면서 나의 인생을 바르게 성공적으로 살아오게 한 삶의 기본 철학이었음을 깨닫는 귀중한 여행이었습니다.

형상을 분떠 만들어 학교의 교훈인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의 진리를 찾기 위한 열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대학교의 정문은 단순히 드나드는 출입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학 내 수많은 유형물 중 제일 먼저 사회와 만나는 접점이자, 대학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는 관악 캠퍼스 종합화 이후 지난 50년간 많은 발전이 있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자가 졸업한 수의과대학만 보더라도 1958년 입학 당시 연건동에 있었는데 그때에는 한국사회에서 수의학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었습니다.

미군 군정청시대 서울대 초대 총장이 미국인이라 선진국의 수의학을 본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수의과대학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5.16 군사정권에서 선진적 학문을 모르던 사람들이 한때 수의과대학을 없애고 수원 농과대학에 한 학과로 흡수하는 실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후 한국이 세계적 국가로 발전하면서 선진국 교육 시스템을 따라 1998년에는 수의과대학을 6년제로 승격시키고 한국을 선진적 국가로 발전하는데 공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수의과 대학은 미국 정부 위탁 기관인 미국수의사회(AVMA)의 교육위원회 (commission on education · COE)로 부터 2017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수의과대학과 똑 같은 자격 있는 세계적 수의과대학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수의대 졸업생의 세계 진출에 미국 수의과대학 출신과 똑 같은 자격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 수의사 국가시험(NAVLE)에도 직접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 수의과대학 출신이 미국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미국 수의사 협회에서 인준한 ECFVG 시험에 통과해야 함)

이는 바로 서울대(수의대) 미주 동창회가 특히 조정현 동문이 미국 수의사 협회와 접촉 서울대 수의과대학과 연결시키고 모든 절차 과정을 협력해 이루

어진 것입니다.

미주 동창회의 특징 중 하나는 미국에서 동문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문들의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해 미국의 상위권 대학과 대학원(주로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직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루즈를 탄 후 첫날 식당에서 처음 만나는 공과대학 동문 부부와 우리 부부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훌륭히 키운 자랑스러운 그들의 자녀 이야기를 듣고 함께 축하하여 주었습니다. 역시 딸은 Harvard law school 출신 변호사이고 아들은 의사라고 하였습니다.

동문들의 2세, 3세들이 훌륭히 키워져 미국사회와 세계적으로도 요긴히 공헌하는 것은 졸업생들이 모교를 위하고 또한 모국을 위한 애국자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VERITAS LUX MEA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매달 높은 수준의 동창회보를 발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의 첫 페이지 맨 위에는 서울대의 정체성, 가치, 정신, 역사가 담겨 있는 로고가 빠짐없이 실리고 있습니다. 받아 보는 졸업생들에게 큰 교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로고를 보면 월계관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그 뒤로 햇불과 깃털 펜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월계관 안 위쪽에는 국립서울대의 머리글자인 ‘K’를 상징하는 교문의 심볼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책에는 ‘VERITAS LUX MEA’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월계관은 으뜸가는 학문적 영예의 전당으로서의 서울대학교를 의미하며, 펜과 햇불은 지식의 탐구를 통해 겨레의 길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VERITAS LUX MEA”는 라틴어인데 번역하면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모교의

교훈은 진리 탐구라는 대학 본연의 사명과 탐구된 진리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사회적 기여라는 서울대의 기본정신과 사명을 잘 갖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VERITAS LUX MEA”라는 로고 내용을 서울대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오랜 역사를 가진 옥스퍼드, 하버드 등 이름있는 여러 대학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 깨닫는 귀중한 시간

이번 크루즈 선상 동창회 모임을 통해 크게 깨달은 것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서울대 로고의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이란 기본 정신, 가치가 그간 나를 인도한 것임을 배우는 여행이었습니다.

나는 서울대 사대부중고 6년을 다니면서도 서울대 로고인 뱃지를 달고 다녔으며 대학, 대학원까지 합치면 12년간을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라는 정신 교육과 훈련을 학창시절 부터 받은 것입니다.

서울대(수의대) 졸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일생동안 특히 미국에서도 젓소 등 낙농산업이 발전한 펜실베이니아에서 대학과 주정부 연구소에서 직접 동물의 질병과 건강을 돌보는 수의사 전문인으로 값있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제 2인생도, 현재까지도 수의학을 응용 제3국인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 가난한 마을에서 선교사로서 지역개발선교를 도우며 영적, 경제적, 신체적 포함 총체적 발전(Wholistic transformation)을 돕고 있습니다. 그 일로 나는 모교로부터 두번의 큰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서울대 수의과 대학 스포필드 홀에서 자랑스런 수의대상을 받았습니다. 잊혀진 과테말라 산골에서 지내고 있을 때 서울대 수의대로부터 상 수여 소식을 받을 때 정말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필자는 곧 85세가 됩니다. 성경 여호아수 책에는 85세인 갈렙이 여호와로부터 헤브론을 구하라는 새사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필자는 이번 크루즈 여행을 통해 모교의 로고, “진리는 나의 빛”에서 그리고 갈렙의 사명에서 훌륭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상강 회장님과 임원단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승부가 이뤄낸 평화



이회백
(의대 61 · 시애틀)

2차 대전 후 냉전이 시작되었을 때 미국에서는 우리가 원자무기를 독점하고 있을 때 소련을 선제공격해서 소련을 없애 영구 평화를 가져오자는 논의가 있었다.

당시 라인홀드 니버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어느쪽이든 이기지 않고 긴장된 균형(tense balance) 상태를 유지하는게 평화를 가져오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승부를 유지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자는 말이다.

이것은 우리 성에 차지 않는다. 운동경기에서도 승부가 날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평화는 한쪽이 다른 쪽을 굴복시킬 때 온다고 믿는게 우리다.

그런데 우리는 제일, 제이차 세계대전에서 한쪽이 다른쪽을 굴복시켰다. 그래

서 평화가 왔는가. 냉전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그래서 평화가 왔는가. 미국 남북전쟁에서 북이 이겼다. 그래서 남북에 평화가 왔는가. 미국에서는 아직도 남부 국기가 휘날리고 있고 남부 장군 동상을 제거하려고 할 때마다 폭동이 일어난다.

1812년 미국과 캐나다(영국) 사이의 전쟁은 Treaty of Ghent에서 전쟁전 상태로 돌아가자고 해서 무승부로 끝났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는 가장 긴 비무장지대인 국경을 사이에 두고 가장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되었다.

생물은 다른 생물을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즉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그런데도 먹는자(predator)와 먹히는자(pre) 둘다 살아남는다. 어느 한쪽이 다른쪽을 몽땅 먹지 않기 때문이다. 즉 승부없이 무승부로 살기 때문이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다. 그리고 패자는 승자가 되려고 한다. 히틀러가 한 예다. 그러니 우리 인간도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무승부로 만족하는 사상변화가 필요하다.

박무종의 뮤직 저널

엘가의 '사랑의 인사'



클래식 분야에서 영국의 체면을 세워 준 Sir Edward Elgar (1857-1934)의 대표적인 작품 둘.

“Salut d’amour(사랑의 인사)”

32세 때인 1889년에 피아노 곡으로 작곡한 뒤 이듬해에 관현악곡으로 편곡하여 널리 알려졌는데 불과 3분 정도의 소품이지만 그지없이 달콤한 낭만적인 곡.

요즘은 바이올린이나 첼로 곡으로도 편곡되어 많은 사랑을 받는데 Sarah Chang (1980~)의 연주가 일품입니다. 2009년 KBS 공연.

이어서 “위풍당당 행진곡” 올립니다.

“Pomp and Circumstance March No. 1, Land of Hope and Glory.”

제목인 “Pomp and Circumstance”는 Shakespeare의 희곡 “Othello” 중 3막 3장의 대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pomp는 장려한, 화려한이란 뜻이고 circumstance는 행사나 의식이란 뜻.

2022년 BBC Proms 마지막 날 공연 실황.

The Band of the RAF Regiment/ Royal Philharmonic Orchestra/ Royal Choral Society Conductor 지휘 Barry Wordsworth

박무종(문리대 언어학과 66)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화제의 동문 유튜버

‘엘에이헤나 LA Hannah’ 한혜정

“발길 따라 LA의 매력 보여드려요”

“오랜 이민자로서 매의 눈으로 도시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변화하는 도시와 일상을 소개합니다.” ‘엘에이헤나 LA Hannah’ 채널은 미국생활 30여 년차 한혜정 동문(지구과학교육학과 83)이 현지인의 눈으로 LA를 소개하는 채널이다. 마켓에서 장을 보고 직접 요리해 먹는 일상과 맛집 소개, 근교 나들이 등 다양한 주제 속에 LA의 매력이 담백하게 묻어난다.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4년 전 LA 지역 주말 한글학교에서 교장으로 봉사하며 아이들 영상을 찍어 주다 편집 프로그램을 처음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교직에 있을 때 잠깐 EBS 스튜디오 강의를 하고 미국에 와서 아쉬움이 많았어요. 유튜브를 접하면서 내가 직접 영상을 만들어 그때처럼 비슷하게 얘기를 풀어나가면 어떨까 싶었어요. 촬영과 편집을 제가 직접 다합니다. 각본과 자료조사는 남편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구독자 7000명은 어떤 분들인가.

“시청자 층은 주로 40대 중반 이상의 중년분들이십니다. 한국과 미국이 반반 정도이고, 미국 생활과 일상이 궁금하신 분들 중, 정보성 브이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 여러 앵글에서 미국 생활을 엿볼 수 있고, 2. 리서치와 티칭이란 저의 장점을 살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 담긴 영상을 보실 수 있다는게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LA란 도시의 매력은.

“LA는 바다도 가깝고 산도 가깝고 축복 받은 따뜻한 땅입니다. 좋은 날씨 때문에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9년 전 이주해서 꿈을 이뤘어요. 커다랗게 5개의 땅으로 나누는데, 권역마다 날씨와 풍광이 조금씩 다르고 특색이 있어요. 저는 LA 카운티에 살고 있는데, 오렌지카운티 사는거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해외최대 한인 밀



집 지역인 코리아타운(일명 K-town)이 있어 한인들에게 편리하고 재미난 곳이에요.

LA는 행정이 성공적인 도시는 아닙니다. 좋은 날씨 하나가 9가지 허물(흙리스나 고물가, 집값 등등)을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인종도 워낙 다양하며, 좋게 보면 도시의 질서를 잡아가는 모멘텀 (동력)이 커서 늘 변화하고 활기가 있죠. 저는 그런 점을 고운 시선으로 보려고 합니다.^^”

-현지 시니어타운을 꾸준히 소개하는데 한인들은 어떻게 은퇴를 준비하나.

“올해 제가 환갑인데, 앞자리 숫자가 바뀌니 정말 급격히 은퇴 플랜과 하우스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최근 영상들 주제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미국 내 한국분들의 은퇴는 애매한 점이 많아요. 고국이 그리워신 분들은 역이민을 많이 생각하시고, 미국에서 은퇴를 할 경우는 타주 이사를 많이 하세요. 좀 더 날씨 좋은 곳으로, 좀 더 물가가 저렴한 곳으로, 좀 더 한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곳으로, 또는 저처럼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곳으로, 사정에 따라 움직이시죠. 땅이 넓다보니 환경을 바꿔서 제2의 인생을 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해요. 본인이

뭘 원하는지, 어느 도시가 적합한지 잘 찾아내야 한답니다. 집만 해도 시니어 아파트(정부보조 렌탈)로 같지, 시니어 타운(자가 소유)으로 같지, 얼마나 다운사이징 할지 빨리 정하고 은퇴 플랜에 맞춰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 한인분들이 정보력도 좋으시고, 노인아파트나 시니어타운, 두 곳 은퇴 공동체에 많이 입주하는 편이에요.”

-1인칭 시점의 영상이 많은데 영상에 잘 출연하지 않는 이유는.

“기획, 촬영, 편집 모두 혼자 하다보니 출연까지 하면 신경 쓸 일이 많고 힘들어서요. 현재 임시 컨설팅펌에서 일을 하며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저를 찍는 기술이 부족해요. 배경이 될 영상을 찍어와서 나레이션을 넣는, 제일 심플한 편집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출연해서 구독자 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 시작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에게 유튜브 채널은 재미있는 취미 생활이고, 커다랗고 근사한 방입니다. 영상과 댓글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커요. 이곳 LA에선 온라인 상에서 알게된 로컬유튜버분들과 구독자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하거든요. 가장 좋은 점은 어제같지 않은 오늘, 유튜브를 통해 재미난 일들이 계속 생겨서 생활에 활기를 줍니다. 구독자가 늘 때마다 ‘내가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위로가 되는 것도 달라진 점이네요.”

-추천 영상은.

“시니어 분들께는 ‘세계적인 장수촌 로마린다의 비밀’과 ‘한인 1600명이 거주하는 남가주 유명 시니어 타운 레저월드’ 영상을, 후배분들에겐 ‘칼텍 캠퍼스 함께 걸어요’와 ‘플레이야비스타, 엘에이 잘나가는 Tech 젊은이들이 사는 곳’ 도시 소개 영상을 추천합니다.”



김학천
(치대 73)

최고와 최악의 퍼스트 레이디

역사적으로 성공한 군주는 대부분 충직한 신하의 보필과 현명한 부인의 내조를 빼놓을 수 없다. 그 대표적 인물로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정관의 치(貞觀之治)' 시대를 구가한 당 태종 이세민을 들 수 있다.

당태종은 형제를 죽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지난 잘못을 딛고 치세에 공을 들인 결과 중국뿐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손꼽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거다.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백성을 섬기는 마음과 신하의 간언도 마다않는 자세 그리고 정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는 통합의 정치 등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 이면에 있는 훌륭한 신하와 지혜로운 부인의 도움 무시 못한다.

그 충신 중 하나가 위징이다. 언

제나 황제의 비위를 거스르면서까지 잘못을 지적하는 그의 직언이 얼마나 강했던지 한번은 당태종이 분노를 삭이지 못하며 그를 처형하겠다는 소리에 황후는 '신하가 굽히지 않고 바른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폐하께서 명군이라는 뜻이 아니겠나'며 추켜세움으로써 황제의 분노도 신하의 위기도 모두 피할 수 있게 했다.

이렇듯 당태종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위징 같은 신하의 직언과 간언도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존중과 황후의 교만하지 않고 검소함, 백성을 배려하는 품성의 덕이었다.

허나 한비자는 군주를 망하게 하는 간신을 8가지로 분류한 '팔간(八奸)'에서 그 첫째가 '한 침대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부인과 후궁들의 일명 '베갯머리 송사'를 가리키는 말일텐데 쓰기 나름일 것이다. 해서 '권력의 크기가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는 이유다.

이는 동서고금에 구분이 없을 게다. 그럼 미국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게끔 도와 칭송받는 영부인들은 누구며 그 반대는 누굴까? 미국은 영부인이 살기 쉽지 않은 나라다. 너무 앞에 나서 활동하면 '설쳐 댄다'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자

리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고 비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남편 뒤에서 도울 줄 아는 영부인상이 어디 그리 쉬울까? 그렇다 해도 FDR 프랭클린 루즈벨트 부인 엘리노어 여사는 '너무 나서'는 영부인으로 분류되면서도 워낙 훌륭한 일을 많이 한 탓 때문



루즈벨트 대통령 영부인 엘리노어.

인지 오랫동안 미국인의 칭송 순위 1위다.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활동과 인권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소아마비로 휠체어 생활하는 남편을 대신해 전국을 누비며 국민들의 의견까지 들어서다.

이 외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의 충실한 조언자이자 부인였던 에비게일 애덤스,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의 영부인 돌리 매디슨 등이 유명한데 특히 돌리 매디슨은 1812년 영국과 전쟁이 벌

어졌을 때 백악관이 함락되기 직전 몸소 수많은 공문서와 서적 게다가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까지 챙겨 탈출했다고 전해진다. 이날 영국군은 백악관을 불질러버렸다.

그렇다면 반대로 최악의 영부인은 누굴까? 사치와 낭비벽에 빠져 대외활동을 가장 소극적으로 펼쳤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부인 메리 여사가 꼽힌다. 링컨이 결혼식장으로 가면서 '나는 지옥으로 가고 있소'라고 자조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헌데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루즈벨트와 링컨과 달리 두 영부인이 '최고'와 '최악'으로 엇갈리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헌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토론타개 이후 인지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용퇴냐 사수냐'를 두고 말이 많은 가운데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목소리에 따라 좌우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여사가 모든 일을 결정한다'는 '만사여사(萬事女史)'가 떠오르는 게 지나친 기우일까?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미국인구가 70억 이라고?

"여러분, 민주당은 매일매일이 4월 15일이지요. 그런데 공화당은 1년 365일이 7월 4일이랍니다." 곳곳에 걸린 성조기를 보며 문득 생각나는 연설대목이다.

4월 15일은 세금보고 마감일. 당연히 찡그린 얼굴을 하게 된다. 세금을 올려 이 나라 국민들에 주름살을 안겨줬다며 민주당을 잔뜩 골렘했다. 반면 공화당은 독립기념일 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하는 정당. 얼마나 멋진 비유인가.

연설자는 로널드 레이건. 재선에 나선 1984년 11월 1일, 투표를 불과 1주일 앞두고 보스턴 시청사에서 마지막 캠페인을 펼쳤다. 주제는 묵직한데도 레이건은 '소통의 달인'답게 온갖 유머와 익살을 섞어 민주당원들조차 배꼽을 잡게 만들었다.

중간에 야유가 터져나와도 레이건은 재치있게 받아 넘겼다. "저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그러니 어떻게 그를 미워할 수 있겠는가.

그의 연설은 끝부분에서 방점을 찍는다. "고기를 잡든, 농사를 짓든, 양키든, 이민자든... 이들 모두 미래의 우리 희망입니다." 그러고는 딱 한마디로 연설을 끝냈다. "미국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America's best days are yet to come)."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싶더니 이내 'USA'를 연호하는 함성이 시청사를 덮었다. 누가 미국의 세기가 끝났다고 하는가. 전성기가 오려면 아직 멀었다는데. USA! USA!

LA 북쪽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엔 레이건 부부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바로 뒤 벽면에 이 문구가 새겨져 있다. "미국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레이건이 남긴 말 가운데 최고의 명언으로 꼽힌다.

벌써 40년이 흘러서인지 레이건의 '전성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미국이 쇠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거의 60%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 미국인들도 열추 40%나 된다.

'중국 부상론'과 '미국 쇠퇴론'의 근거는 인구다. 중국의 방대한 인재풀(talent pool)이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13억 가운데 1%만 엘리트라고 쳐도 무려 1300만명이나 되니 그럴싸 하다.

정말 미국은 중국에 밀릴까.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받는 리관유는 생전 이런 말을 남겼다. "미국의 인구는 사실 70억으로 봐야 해요." 전세계 인구가 미국의 인재풀이 아니.

학술연구를 하려해도, 창업을 하려해도, 심지어 스포츠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너도 나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샌

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프로농구(NBA)의 슈퍼스타 루카 돈치치... 이들에게 미국은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또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다. 리관유는 그래서 미국인구를 70억으로 파악했을 터다.

미국은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에 만족하는 나라가 아니다. 시인이자 철학자인 랠프 왈도 에머슨(1803~1882)에 따르면 미국은 '내일의 나라(a country of the future)'다. 늘 미래의 비전을 그리고 있으니 전성기가 지났을 리 없다.

지난 7월 4일, 필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퍼레이드가 열렸다. 지구촌 곳곳에서 온 이민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화려하진 않더라도 미국이 왜 초강국이 됐는지를 실감나게 해준 행사였다. 리관유의 말마따나 세계를 포용하는 힘을 느껴서다. 정말이지 미국의 전성기는 항상 영원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민자들이 꿈을 좇아 몰려드는 한.

메타, 아마존, 구글 동문 선배와 함께한 일주일

첨단융합학부 학생들 실리콘밸리 탐방 현지 전문가 동문들 생생한 경험 멘토링

올해 신설된 첨단융합학부(학부장 송준호) 신입생들이 첫 학기를 마치자마자 첨단기술의 메카인 미국 실리콘밸리 탐방에 나섰다. 첨단융합학부가 6월 23~30일 진행한 'SNUTI to Silicon Valley' 를 통해 첨단융합학부 신입생 98명과 타 단대 학생들로 구성된 첨단융합학부 서포터즈 40명 등 138명이 실리콘밸리에 다녀왔다. 송준호 학부장 등 교원 6명이 동행했다.

'실리콘밸리 정신: 과거부터 미래까지'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실리콘밸리 현지 선배들과의 협업이 돋보였다. 도착 직후부터 틱톡, 구글 등 현지 빅테크 기업에 재직하는 모교 동문 7명을 초청한 패널 토크가 열렸다. 동문들은 학교생활에서 후회했던 경험, 실리콘밸리에 온 계기 등에 대해 진솔한 조언을 건넸다.

스탠퍼드대를 찾은 다음날엔 이 대학에 재학 중인 동문 선배들이 캠퍼스 투어와 멘토링을 맡았다.

재학생들은 이후 며칠간 조를 나누어 바이오 기업 제넨텍(Genentech), 핀테크 기업 스퀘어(Square) 본사와 메타, 아마존, 베어로보틱스, 구글 등 테크 기업을 방문했다. 각 기업에서 재직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직무 내용과 기업 특

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 탐방의 백미는 매일 저녁 열린 김태용 EO 대표, OpenAI 정형원 박사, 조성문(전기공학96-05) 차트메트릭 대표 등 실리콘밸리 선배들의 특강. 생생한 창업기와 현직자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갓 대학생이 된 이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줬다. 강연 후 열의 넘치는 학생들의 질의로 자정이 되도록 연사들이 떠나지 못할 정도였다. 다른 날 학생들은 미니 아이디어톤을 열고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했다.

김준범(첨단융합24입) 학생은 "다양한 빅테크 기업을 방문하고, 서울대 선배들을 만나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엿보며 지금껏 깊게 고민해보지 않은 내진로를 돌아볼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안상준(첨단융합24입) 학생은 "실리콘밸리의 다양한 가치관과 그 생각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최고의 시간이었다. 미래의 후배님들께도 참여를 적극 추천한다" 고 말했다.

학부 차원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례적인 대규모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학업과 진로 준비를 돕겠다는 뜻이 담겼다. 첨단융합학부는 내년 1월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를 방문한 첨단융합학부생들. 사진=첨단융합학부 인스타그램

■ 첨단융합학부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신설 때 지난 3월 4일 218명의 신입생과 함께 출범했다. 첨단융합학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데이터과학 △지속가능기술 △차세대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의 5개 전공으로 구성된 학부 과정이다. 3학기 동안 기초역량 강화와 전공 탐색을 거쳐 이들 전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점에서 자유전공학과와 같지만, 전공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교육 과정에는 공대 교수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대 교수진도 참여한다.

모교는 이러한 첨단융합학부를 새로운 학부 교육을 도입하는 데 디딤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모교 로봇 기술 하버드 · MIT · 스탠퍼드 제쳤다

조규진 교수팀, 3D 프린팅 로봇 보스턴 로보틱스 챌린지서 우승

모교 기계공학부 조규진(기계설계92-98) 교수팀이 미국 보스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Form & Function Robotics Challenge' 에서 우승했다.

공과대학(학장 홍유석)은 5월 1~2일 이틀간 열린 챌린지에서 조규진 교수팀이 우주에서의 건설 자동화를 위한 '트랜스포밍 3D 프린팅' 로봇 기술을 제시해 MIT, 하버드, 터프스 등 보스턴 명문 대학과 코넬, 스탠퍼드 등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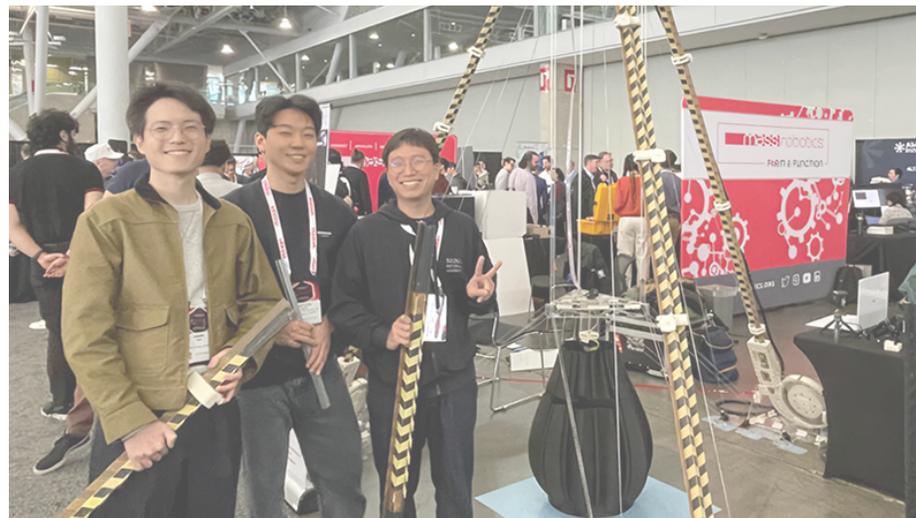
조규진 교수팀은 부채 접기처럼 지그재그 모양으로 겹겹이 접힌 구조가 줄자처럼 감기는, 폴드앤롤(Fold-and-Roll) 이종 압축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했다. 수납할 때는 이종 압축 방법을 통해 압축률이 높고 작은 부피로 수납할 수 있고, 전개할 때는 종이접기의 원리를 활용해서 지그재그 형태의 주름 구조로 펼쳐 단단하게 변화한다. 모터 1개만으로 전개·수납·작동 모두를 할 수 있다.

폴드앤롤 방식으로 보관될 수 있는

구조들을 이용해 트랜스포밍 프레임을 구성했고, 이 프레임과 기존 3D 프린팅 장치를 융합해 트랜스포밍 3D 프린팅 장치를 구현했다. 제작된 트랜스포밍 3D 프린팅 장치는 수납 시 밀면 0.8m, 높이 0.75m의 삼각기둥 모양에서 최대 밀면 3.4m, 높이 3.6m의 삼각뿔 형태로 전개된다.

해당 장치는 1.2mm 크기의 노즐이 장착됐으며, 일반적인 3D 프린팅 소재인 PLA 소재를 사용하여 사람보다 큰 구조물의 출력이 가능하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회장 콘크리트 바닥에 2000층의 레이어로 구성된 1.2m의 구조물 프린팅을 시연했다.

이번에 개발한 3D 프린팅 장치가 모바일 로봇과 접목될 경우, 이 로봇은 스스로 지정 장소로 이동해서 대형 프레임 전개를 하고 목표 구조물을 출력한 뒤 프레임을 접고 다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건축 자동화 로봇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달 기지 건설 작업에



'트랜스포밍 3D 프린팅' 장치 앞에서 (왼쪽부터) 이해민 박사, 송재영 연구원, 정순필 박사과정.

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충분한 강성과 강도가 필요한 대형 구조물의 휴대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인 만큼 우주환경 이외에도 대형 구조물이 필요한 건설현장과 재난현장 등 각종 분야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조규진 교수는 인간중심소프트로봇기술연구센터를 이끌면서 무당벌레 모사 점핑 글라이딩 로봇, 무동력

가변 신축성 엑소 슈트 등의 소프트 로봇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왔다. 흔히 로봇을 떠올릴 때 금속 등의 딱딱한 형태를 생각하지만, 조규진 교수팀은 폴리머나 패브릭을 활용하거나 폴딩 등의 방식을 적용해 로봇 패러다임을 확장해 왔다.

조규진 교수는 로봇 제작에 "자연과 일상에서 많은 영감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남주 기자**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 워싱턴주 -故고광선 (공대 57)
-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 조지아 - 주종광 (약대 60)
-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 뉴욕 - 조상근 (법대 69)

골드이사 (\$10,000이상)

-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 남가주 - 박종수 (수의 58)
-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 남가주 - 이홍표 (의대 58)
-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 남가주 - 하기환 (공대 66)
-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 남가주 - 홍수웅 (의대 59)
-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 뉴욕 - 오인석 (법대 58)
-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 미시간 - 박용화 (의대 52)
-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 커네티컷 - 김창수 (의대 54)

-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 필라델피아 - 손재욱 (가정 77)
-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이상)

- 남가주 -故김원경 (약대 59)
- 남가주 - 권봉성 (문리대 64)
-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 남가주 - 이종묘 (간호대 69)
-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 뉴욕 - 김현중 (공대 63)
-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 워싱턴DC - 남육현 (경영대 84)
-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 필라델피아 - 신의석 (공대 53)
- 미네소타 - 황효숙 (사대 65)

종신이사 (\$3,000이상)

- 남가주
- 故노재성 (법대 58)
- 故서영석 (의대 55)
- 故오재인 (치대 33)
- 故윤낙승 (의대 60)
- 강신용 (사대 73)
- 곽용길 (문리대 59)
- 권기홍 (의대 60)
- 김광은 (음대 56)
- 김기형 (상대 75)
- 김대중 (의대 70)
- 김동훈 (의대 71)
- 김보연 (간호대 63)
- 김상찬 (문리 65)
- 김성호 (법대 64)
- 김수영 (사대 57)
- 김자성 (의대 79)
- 김재영 (농대 62)

- 김정빈 (공대 66)
- 나두섭 (의대 66)
- 류재풍 (법대 60)
- 박영근 (상대 63)
- 박용필 (문리대 66)
- 박원준 (공대 53)
- 박운수 (문리대 48)
- 방명진 (공대 73)
- 백길영 (의대 58)
- 백만일 (공대 64)
- 서동영 (사대 60)
- 신건호 (법대 53)
- 신영찬 (의대 62)
- 심상은 (상대 54)
- 안병일 (의대 63)
- 오홍조 (치대 56)
- 이근원 (공대 67)
- 이명선 (상대 58)
- 이성숙 (공대 56)
- 이세열 (사대 57)
- 이승훈 (상대 74)
- 이채진 (문리대 55)
- 이청광 (상대 61)
- 임낙균 (약대 64)
- 임용오 (의대 57)
- 전경배 (의대 69)
- 전희택 (의대 58)
- 정군희 (의대 64)
- 정동구 (공대 57)
- 정임현 (간호대 72)
- 정철룡 (의대 55)
- 정영혜 (가정대 71)
- 제용원 (문리대 66)
- 조한원 (의대 57)
- 차민영 (의대 76)
- 차중환 (사대 54)
- 한효동 (공대 58)
- 홍성선 (약대 72)
- 홍중화 (약대 74)

뉴욕

- 故김광호 (문리대 62)
- 故한창섭 (문리대 57)
- 강에드워드 (사대 60)

- 고애자 (음대 57)
- 권영국 (상대 60)
- 김승호 (공대 71)
- 김영웅 (치대 55)
- 김중률 (사대 51)
- 김한중 (의대 56)
- 김해암 (의대 52)
- 배정희 (사대 54)
- 서영숙 (간호대 67)
- 석창호 (의대 66)
- 손진태 (약대 67)
- 신응남 (농대 70)
- 윤종숙 (약대 66)
- 이강홍 (상대 60)
- 이기영 (농대 70)
- 이대영 (문리대 64)
- 이영재 (상대 58)
- 이재덕 (법대 60)
- 이재량 (상대 61)
- 이전구 (농대 60)
- 이준행 (공대 47)
- 이태호 (상대 58)
- 최수용 (상대 55)
- 최영태 (문리대 67)
- 최한용 (농대 58)
- 추재욱 (의대 57)
- 한태진 (의대 58)
-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 故고일석 (보건대 69)
- 故박경민 (의대 53)
- 김광수 (문리대 73)
- 고종성 (사대 75)
- 김문소 (수의대 61)
- 김용구 (공대 66)
- 오세경 (약대 61)
- 윤선홍 (치대 64)
- 이의인 (공대 68)
- 전신의 (문리대 57)
- 정정욱 (의대 60)
- 정태영 (문리대 71)
- 조만연 (상대 58)
-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DC

- 故방은호 (약대 43)
- 강연식 (사대 58)
- 공순옥 (간호대 66)
- 권기현 (사대 53)
- 민홍기 (문리대 61)
- 박평일 (농대 69)
- 서희열 (의대 57)
- 오인환 (문리대 63)
- 이내원 (사대 58)
- 이선구 (문리 65)
- 이윤주 (상대 63)
- 최재귀 (미대 63)
- 최지원 (의대 61)

미시간

- 故남상용 (공대 52)
- 故정태 (의대 57)
- 장병진 (공대 61)

북가주

- 강재호 (상대 57)
- 손석보 (공대 68)
- 윤정욱 (약대 50)
- 최경선 (농대 65)
- 한만섭 (공대 49)

시카고

- 강영국 (수의대 67)
- 심상구 (상대 63)
- 이재희 (치대 67)
- 장윤일 (공대 60)
- 조봉완 (법대 53)
- 최의필 (의대 53)
- 한재은 (의대 59)

오레곤

- 김상순 (상대 67)
- 박희진 (농 78)
- 이은상 (상대 52)

종신이사 후원금

Century Foundation Fund \$104,000
(7/1/23 - 12/31/23 17대 1차 회기 6개월)

샌디에고

- 임천빈 (문리대 61)
- 미네소타
- 김권식 (공대 61)
- 김태환 (의대 58)
- 남세현 (공대 67)
- 변우진 (인문대 81)
- 조형준 (문리대 62)

휴스턴

- 박진섭 (의대 67)

오하이오

- 김용현 (경원 66)
-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 故김영일 (공대 53)
- 이명자 (간호대 74)
- 이희백 (의대 55)
- 임헌민 (공대 84)

조지아

- 김용건 (문리대 48)
- 석호태 (공대 85)
- 이종석 (의대 54)

커네티컷

- 故유시영 (문리대 68)

플로리다

- 김중권 (의대 63)
- 임필순 (의대 54)

텍사스

- 박태우 (공대 64)
- 이광연 (공대 60)
- 조시호 (문리대 59)

필라델피아

- 고병은 (문리대 55)
- 김현영 (수의대 58)
- 서중민 (공대 64)
- 손재욱 (가정대 77)
- 신성식 (공대 56)
- 주기목 (수의대 68)

하트랜드

- 김명자 (문리대 62)
- 김시근 (공대 72)
- 배규영 (사대 68)
- 오명순 (가정대 69)
- 이교락 (의대 53)

하와이

- 故최경윤 (사대 51)

알래스카

- 윤제중 (농대 55)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3.12.31;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 강경수 (법 58)
- 강동순 (법 59)
- 강윤희 (간 46)
- 강창만 (의 58)**
- 강춘자 (간 69)
- 강호석 (상 81)
- 고남규 (의 68)
- 고석규 (치 65)**
- 권기상 (대 72)
- 권봉성 (문 64)
- 김경 (문 63)**
- 김경수 (사 58)
- 김건진 (문 62)**
- 김동석 (음 64)**
- 김영배 (미 61)**
- 김경수 (치 54)
- 김경욱 (미 61)**
- 김경자 (미 60)
- 김광은 (음 56)
- 김남영 (공 53)
- 김동산 (법 59)**
- 김명숙 (농 58)**
- 김명희 (간)
- 김문엽 (농 83)
- 김범수 (문 61)
- 김병완 (공 58)**
- 김상찬 (문 65)**
- 김석홍 (법 59)
- 김성호 (법 64)
- 김성환 (의 65)**
- 김수향 (간 68)**
- 김순길 (법 54)
- 김순자 (치 57)**
- 김영덕 (법 58)**
- 김옥경 (생 60)**
- 김용주 (간 69)
- 김용채 (문 61)
- 김원탁 (공 65)**
- 김일영 (의 65)
- 김자성 (의 79)
- 김재영 (농 62)**
- 김정애 (간 69)
- 김정호 (농 59)
- 김종표 (법 58)
- 김준일 (공 62)
- 김창진 (공 77)
- 김태환 (문 78)
- 김태윤 (법 53)
- 김택수 (의 57)**
- 김학철 (의 55)**
- 김혜숙 (미 68)**
- 김홍목 (문 60)
- 김희창 (공 64)
- 나두섭 (의 66)**
- 나승욱 (문 59)
- 노명호 (공 61)**
- 문경호 (문 59)**
- 문병길 (문 61)
- 마동일 (의 57)
- 민영기 (공 65)**
- 민일기 (약 69)
- 박명근 (상 63)
- 박민식 (수 65)
- 박부강 (사 64)
- 박상원 (대 20)
- 박원준 (공 53)**
- 박용 (문 89)**
- 박우선 (공 57)**
- 박은숙 (미 62)**
- 박은희 (미 68)**
- 박인수 (농 64)**
- 박인창 (농 65)
- 박일우 (의 70)
- 박임하 (치 56)
- 박자경 (생 60)
- 박종수 (수 58)**
- 박찬호 (공 58)
- 박찬호 (농 63)
- 박한영 (치)
- 박혜옥 (간 69)
- 박호현 (의 52)**
- 박홍근 (공 64)**
- 박희자 (음 68)
- 방명진 (공 73)**
- 배동완 (공 65)**
- 백옥자 (음 71)**
- 백혜란 (미 70)
- 벤자민 홍 (문 53)
- 서동영 (사 60)
- 서명희 (농 67)
- 서세진 (음 62)
- 서치원 (공 69)
- 성낙호 (치 63)
- 성주경 (상 68)

- 손갑수 (약 59)
- 손기용 (의 55)**
- 손진태 (약 67)**
- 손학식 (공 61)
- 송명국 (문 81)
- 신건호 (법 63)**
- 신동국 (수 76)
- 신영찬 (의 62)
- 신정연 (미 61)
- 양승문 (공 65)**
- 양승조 (음 70)
- 양은석 (음 70)**
- 양태준 (상 56)
- 오선웅 (의 63)
- 오찬수 (약 57)
- 故 오형원 (의 53)
- 우춘식 (상 61)
- 원종민 (약 57)**
- 위중민 (공 64)**
- 유덕영 (공 57)
- 유이중 (농 74)
- 유석환 (의 55)
- 육태식 (의 61)
- 윤경민 (법 55)**
- 윤영돈 (법 59)
- 윤희성 (치 65)
- 이강훈 (의 65)
- 이건일 (의 62)
- 이경희 (인 83)
- 이기준 (법 54)
- 이방기 (농 59)
- 이범식 (공 61)
- 이상우 (의 56)
- 이서희 (법 70)
- 이상숙 (공 56)
- 이성자 (간 76)
- 이소희 (의 61)**
- 이영수 (상 60)
- 이영일 (문 53)**
- 이영현 (간 70)
- 이용환 (공 64)
- 이원택 (의 65)
- 이원익 (문 73)**
- 이익삼 (사 58)
- 이장길 (치 63)**
- 이재권 (법 56)
- 이정근 (사 60)
- 이정남 (공 63)
- 이정화 (공 52)
- 이종모 (간 69)
- 이준호 (상 65)
- (고)이중희 (공 53)
- 이진영 (의 65)
- 이창무 (공 54)**
- 이창신 (법 57)
- 이청광 (상 61)**
- 이체진 (문 55)
- 이태영 (법 60)
- 이호 (음 92)**
- 임동규 (미 57)**
- 임동호 (약 55)
- 임문빈 (상 58)
- 임석중 (공 50)
- 장기열 (치 55)**
- 장기창 (공 56)
- 장대국 (음 57)
- 장동석 (문 66)
- 장문섭 (공 69)
- 장소현 (미 65)
- 장원경 (미 73)
- 장윤희 (사 54)
- 장인숙 (간 70)
- 장정용 (미 64)**
- 장춘호 (공 56)**
- 전경배 (의 69)**
- 전낙관 (사 60)
- 전범수 (농 71)
- 전상욱 (사 52)**
- 전원일 (의 77)
- 정규희 (의 64)**
- 정동주 (생 72)
- 정명자 (사 56)**
- 정예현 (상 63)**
- 정연웅 (상 63)
- 정인환 (법 54)
- 정재형 (약)
- 정철룡 (의 61)
- 정현진 (간 68)
- 정형민 (문 71)**
- 정혜령 (간 72)
- 정환 (공 64)
- 제영혜 (생 71)**
- 조경애 (음 64)
- 조동철 (사 68)
- 조재국 (농 67)

뉴욕

- AiJa Lee
- 계동휘 (치 67)**
- 곽선섭 (공 61)
- 곽상진 (의 53)
- 고순정 (간 69)
- 고애자 (음 57)
- 권문웅 (미 61)**
- 권영대 (상 60)**
- 권영대 (공 69)
- 권정덕 (의 58)
- 금영천 (약 72)**
- 김경일 (치 61)
- 김문경 (약 61)
- 김승호 (공 71)**
- 김우영 (상 60)
- 김영무 (공 75)
- 김영웅 (치 55)**
- 김영진 (문 50)
- 김영철 (의 55)
- 김영취 (법 80)
- 김용문 (문 63)**
- 김정희 (간 69)
- 김중원 (거 58)
- 김진자 (간 60)
- 김창수 (약 64)
- 김창화 (미 65)
- 김태일 (공 68)**
- 김학자 (간 59)**
- 김혜자 (의 52)**
- 김현중 (공 63)
- 남상래 (간 65)**
- 문석면 (의 52)**
- 민인기 (의 67)
- 리준무 (음 65)**
- 박건이 (공 60)**
- 박경희 (음 57)
- 박상수 (공 56)
- 박은규 (약 72)**
- 방준재 (의 70)**
- 변경웅 (공 65)
- 변호련 (간 63)
- 배상규 (약 60)
- 서병선 (음 65)**
- 서충선 (사 57)
- 석창호 (의 66)
- 선종철 (의 59)
- 성기호 (약 57)
- 손갑수 (약 59)**
- 손경택 (농 57)
- 송기인 (의 60)**
- 송웅길 (대학원 69)
- 신두식 (의 58)
- 신용남 (농 70)**
- 안태홍 (상 65)
- 양명자 (사 63)**
- 양성택 (상 66)
- 오동호 (의 66)
- 오용환 (약 68)
- 에드워드 강 (문 60)**
- 우규환 (사 60)
- 우상영 (상 55)
- 김국화 (공 56)
- 김우신 (의 60)
- 김정화 (음 56)**
- 김재식 (의 61)
- 남성희 (의 56)
- 박용화 (의 58)**
- 오동환 (의 65)
- 오혁주 (사 88)

네바다

- 김상순 (상 67)
- 김영중 (치 66)
- 김용재 (의 60)
- 이학은 (약 57)**
- 정상진 (상 59)

달라스

- 최취기 (공 61)

미네소타

- 김권식 (공 61)**
- 문성인 (공 88)**
- 민홍기
- 박현아 (공 88)**
- 박유진
- 윤정식 (농 86)
- 이창재 (문 56)**
- 황한수 (수 62)
- 홍효숙 (사 65)

미시간

- 고광국 (공 54)
- 고선희 (문 63)**
- 김국화 (공 56)
- 김우신 (의 60)
- 김정화 (음 56)**
- 김재식 (의 61)
- 남성희 (의 56)
- 박용화 (의 58)**
- 오동환 (의 65)
- 오혁주 (사 88)

- 이강욱 (공 70)
- 이명중 (공 72)**
- 이문봉 (미 76)
- 이충욱 (농 69)
- 이충호 (의 63)
- 이상근 (상 84)
- 이상무 (의 56)**
- 이영일 (의 60)
- 이유성 (사 57)**
- 이재진 (의 59)**
- 이준형 (공 48)
- 이태만 (의 61)
- 이흥우 (공 50)**
- 전병삼 (약 54)
- 정동성 (상 58)**
- 정인용 (의 71)
- 정해민 (법 55)**
- 정화웅 (사 61)**
- 조남천 (사 59)**
- 조대영 (공 61)
- 조득환 (의 61)
- 조중수 (공 64)
- 조태환 (상 56)
- 진봉일 (공 50)
- 차국만 (상 60)
- 최영태 (문 67)
- 최승운 (의 61)
- 최준희 (의 58)**
- 최정웅 (사 63)**
- 최한용 (농 58)
- 최형무 (법 69)**
- 한병용 (문 71)**
- 한태진 (의 58)**
- 한영대 (간 66)
- 허경력 (의 71)
- 허선형 (의 58)
- 홍정표 (사 63)

뉴잉글랜드

- 곽노균 (상 51)
- 김경일 (공 58)
- 김문수 (수 61)
- 김선희 (약 59)
- 김우동 (사 58)**
- 박영철 (농 64)
- 박종건 (의 56)
- 송미자 (농 62)
- 윤상래 (수 62)
- 윤영자 (미 60)
- 이규진 (약 60)**
- 이금하 (문 69)
- 이은주 (음 73)
- 이의인 (법 68)
- 임영호 (공 72)
- 장용복 (공 58)
- 정선주 (간 68)
- 정정욱 (의 60)
- (고)주창준 (의 50)
- 최선의 (문 69)
- 한서동 (의 61)

텍사스

- 김정수 (문 69)
- 김현주 (문 61)
- 노영일 (의 64)
- 민영기 (공 65)
- 박동수 (정 58)
- 박정일 (의 61)**
- 박창욱 (공 56)
- 백운기 (문 56)
- 서상현 (의 65)
- 소진문 (치 58)**
- 송재현 (의 45)
- 신석균 (문 54)
- 안영학 (문 57)**
- 유기정 (간 72)
- 육길원 (사 59)
- 윤경순 (사 61)
- 윤덕상 (치 62)
- 이경미 (미 69)
- 이건정 (공 69)
- 이동근 (공 75)
- 이소희 (간 68)**

- 이성길 (의 65)
- 장병진 (공 61)
- 조병권 (공 64)
- 주명순 (간 64)
- 하계현 (공 64)**

북가주

- 강재호 (상 57)**
- 김교연 (문 72)**
- 김성철 (공 82)
- 김정희 (사 55)
- 김정희 (법 56)
- 김현양 (공 64)**
- 남광순 (음 64)**
- 박서규 (법 56)
- 박성수 (공 59)
- 박영훈 (공 72)
- 송영훈 (상 57)**
- 신규원 (공 64)
- 안호삼 (문 58)**
- 위장호 (의 67)
- 이관모 (공 55)
- 이성원 (공 65)
- 이성형 (공 57)
- 이장우 (문 72)**
- 이창한 (공 56)
- 이흥기 (공 62)
- 임승배 (문 66)
- 임정란 (음 76)
- 전병림 (공 54)
- 정준원 (간 67)**
- 조대목 (사 60)
- 최경선 (농 65)**
- 한상봉 (수 67)**
- 홍병의 (공 68)
- 황동하 (의 65)

아리조나

- 진명규 (공 70)**

오레곤

- 김영자 (간 56)
- 박희진 (농 78)
- 최홍성 (의 55)
- 한국남 (공 57)
- 한영준 (사 60)

오하이오

- 명인재 (자 75)
- 박훈 (공 74)
- (고)이영웅 (의 57)

워싱턴 DC

- 강길중 (약 69)
- 고의걸 (의 55)**
- 곽명수 (문 65)
- 권철수 (의 68)
- 김기봉 (공 63)
- 김기환 (공 67)**
- 김내도 (공 62)
- 김부근 (의 58)
- 김영란 (사 58)
- 김윤호 (공 64)
- 김용환 (치 88)**
- 김희주 (의 62)**
- 나연수 (사 57)
- 남춘일 (사 69)
- 박인영 (의 69)
- 박일영 (문 59)
- 박찬모 (공 54)**
- 박후우 (문 61)
- 배성호 (의 65)
- 백순 (법 58)
- 백용현 (공 64)
- 서윤석 (의 62)**
- 석균범 (문 61)
- 신경은 (문 65)
- 오인환 (문 63)**
- 양용관 (수 62)
- 우재형 (상 54)**
- 유달 (의 67)**
- 유영신 (인 74)
- 유영준 (의 74)
- 이건형 (수 54)
- 이규양 (문 62)
- 이내원 (사 58)**
- 이서구 (문 61)
- 이선구 (문 65)**
- 이상배 (수 57)
- 이연주 (치 88)**
- 이영덕 (사 61)
- 이윤주 (상 63)
- 이재철 (의 55)**
- 이중국 (의 52)
- 이준영 (치 74)
- 이진상 (공 57)
- 이철수 (공 61)
- 임광록 (간 72)
- 전희순 (간 76)
- 정영자 (사 56)
- 정원자 (농 62)
- 정평희 (공 71)

시카고

- Ja H. Song
- 강영국 (수 67)
- 구경희 (의 59)
- 김길준 (의 59)
- 김동희 (공 66)**
- 김규호 (의 58)**
- 김병윤 (문 65)
- 김성일 (공 68)
- 김승주 (간 69)**
- 김영우 (문 66)**
- 김용주 (공 69)**
- 김용환 (공 71)
- 김윤하 (공 66)
- 김정수 (문 69)
- 김현주 (문 61)
- 노영일 (의 64)
- 민영기 (공 65)
- 박동수 (정 58)
- 박정일 (의 61)**
- 박창욱 (공 56)
- 백운기 (문 56)
- 서상현 (의 65)
- 소진문 (치 58)**
- 송재현 (의 45)
- 신석균 (문 54)
- 안영학 (문 57)**
- 유기정 (간 72)
- 육길원 (사 59)
- 윤경순 (사 61)
- 윤덕상 (치 62)
- 이경미 (미 69)
- 이건정 (공 69)
- 이동근 (공 75)
- 이소희 (간 68)**

- 조병선 (의 65)
- 천권희 (간)
- 최경수 (문 54)**
- 최대영 (의 73)**
- 최재귀 (미 63)
- 한광수 (의 57)**
- 홍영석 (공 58)

워싱턴주

- 권영희 (약 66)
- 김교선 (법 54)
- 김인배 (수 59)**
- 김재훈 (공 72)**
- 류성열 (공 72)**
- 변동태 (법 58)
- 안승적 (농 59)
- 윤석진 (문 64)
- 윤태근 (상 69)
- 이길승 (상 57)
- 이명자 (간 74)
- 이연주 (치 88)**
- 이희백 (의 55)
- 정영자 (사 56)
- 최준한 (농 58)

유타

- 김인기 (문 57)

조지아

- 김기춘 (공 61)
- 김영서 (상 54)
- 김중구 (수 73)
- 김현희 (간 59)
- 백낙영 (상 61)
- 서광모 (공 65)
- Steve Sung
- 오경호 (수 60)
- 윤영돈 (법 59)
- 은철수
- 이종석 (의 54)
- 임수암 (공 62)**
- 임한웅 (공 60)**
- 정선휘 (공 65)**
- 최덕순 (간 58)
- 최종진 (의 63)
- 한성수 (의 54)

하와이

- 김달욱 (사 55)
- 김용수 (농 75)
- 김윤균 (공 63)
- 안은식 (문 55)
- 이재형 (수 61)**
- 최경윤 (사 51)**
- 하인환 (공 56)

하트랜드

- 김경숙 (간 70)**
- 김재경 (공 64)**
- 김태찬 (음 80)
- 김시근 (공 72)**
- 배규영 (사 68)
- 오명순 (생 69)
- 이광자 (간 63)
- 이상강 (의 70)**
- 이주현 (미 92)
- 이치현 (약 77)
- 임소연 (음 91)
- 정민재 (농 71)
- 조원진 (문 63)**
- 호민선 (상 59)

휴스턴

- 김영일 (의 55)
- 박석규 (간 59)
- 박유미 (약 62)**
- 박태우 (공 64)**
- 이윤성 (수 81)**
- 이은애 (음 81)
- 이학호 (수 59)
- 진기주 (상 60)**
- 최관일 (공 54)**
- 최성호 (문 58)
- 최용천 (의 53)

룩키마운틴스

- 송요준 (의 64)
- 전남일 (사 72)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4.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동석 (음 64)	100
김성환 (의 65)	300
송영두 (공 59)	200
박우선 (공 57)	300
박중수 (수 58)	10,000
박한영 (치)	100
백만일 (공 64)	200
백옥자 (음 71)	200
벤자민 홍 (문 53)	1,000
손기용 (의 55)	200
양은석 (음 70)	500
양승문 (공 65)	200
이범식 (공 61)	200
이상대 (농 85)	500
이영일 (문 53)	10,000
이체진 (문 55)	200
임낙균 (약 64)	10,000
전상욱 (사 52)	1000
정균희 (의 64)	200
한귀희 (미 68)	50
한정현 (치 55)	500
황현상 (의 55)	100
뉴욕	
곽선섭 (공 61)	200
신용남 (농 70)	500
김해암 (의 52)	100
리준주 (음 65)	200
문석면 (의 52)	200
우용환	1,000
윤철 (문 54)	200
이준행 (공 48)	1,000
조남천 (사 59)	200
에드워드강 (문 60)	300
허선행 (의 58)	200
북가주	
이성원 (공 65)	200
플로리다	
김중권 (의 63)	200
오석일 (의 64)	200
네바다	
김상순 (상 67)	200
미시간	
이성길 (의 65)	200

커네티컷	
최창승 (의 58)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 57)	300
워싱턴DC	
강길중 (약 59)	500
권철수 (의 68)	200
김명철 (공 60)	
민홍기 (문 61)	1,000
서윤석 (의 62)	200
박평일 (농 69)	1,000
백순 (법 58)	100
정평희 (공 71)	200
시카고	
소진문 (치 58)	200
최희수 (문 67)	1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1,000
테네시	
김경덕 (공 75)	200
텍사스	
황명규 (공 61)	200
필라델피아	
최창승 (의 52)	500
손재욱 (가 77)	500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1,500
조지아	
최종진 (의 63)	5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0
휴스턴	
진기주 (상 60)	1,000
하와이	
(고) 전영표 (문 55)	1,000

업소록 후원금

남가주	
서동영 (사 60)	240
김원탁 (공 65)	240
강호석 (상 81)	240
이종모 (간 69)	240
정균희 (의 64)	240
정재훈 (공 64)	240
하기환 (공 66)	240
김경무 (공 69)	240
김원탁 (공 65)	240
김일영 (의 65)	240
김자성 (의 79)	240
신동국 (수 76)	240
최무식 (약 66)	240
아주투어	500
이경희 (인 83)	240
이병준 (상 55)	240
이상대 (농 80)	240
이승훈 (상 74)	240
이태영 (법 60)	480
뉴욕	
김승호 (공 71)	240
신용남 (농 70)	240
석창호 (의 66)	240
이전구 (농 60)	240
오레곤	
박희진 (농 78)	24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40
장학기금	
남가주	
박원준 (공 53)	300
뉴욕	
선종철 (의 59)	100
신용남 (농 70)	200
홍성선 (약 72)	100
미시간	
고광국 (공 54)/	100,000
고국화 (공 56)	
시카고	
김현주 (문 61)	
이용락 (공 48)	3,0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
Charity Fund	
필라델피아	
신익석 (공 53)	5,000
Website 광고	
남가주	
김자성 (의 79)	1,0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김양희 (음 77)	900
김자성 (의 79)	1,500
류원 (대학원 74)	1,500
미주재단	10,000
박수경 (생 84)	3,000
서치원 (공 69)	1,500
신동국 (수 76)	300
이경희 (인 83)	300
이병준 (상 55)	1,500
이전구 (농 60)	1,500
하기환 (공 66)	1,000
홍윤정 (음 70)	300
뉴욕	
김승호 (공 71)	1,500
이전구 (농 60)	1,50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 (공 57)	3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100
최재귀 (미 63)	200
한광수 (의 57)	300
오레곤	
김영자 (간 56)	1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인명록비	
뉴욕	
신용남 (인명록 책값)	50

튀르키예 기부금

남가주	
서진 (간)	3,000
뉴욕	
신용남 (농 70)	200
Brain Network	
뉴욕	
신용남 (농 70)	100
시카고	
한재은 (의 59)	100
워싱턴 DC	
오인환 (문 63)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나눔기금	
남가주	
주선희 (문 66)	50
뉴욕	
조태환 (상 56)	100
신용남 (농 70)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펜실베이니아	
손재욱 (가 77)	200
신익석 (공 53)	5,000
지부분담금	
남가주	
임춘택 (상 68)	
뉴잉글랜드	
최민진 (공 71)	
뉴욕	
연영재 (공 74)	
미네소타	
용정식 (농 86)	

북가주	
김범섭 (공 79)	
북텍사스	
이선애 (경 85)	
록키마운틴스	
최문기 (공 73)	
조지아	
배혜영 (음 79)	
샌디에고	
송오석 (공 91)	
시카고	
조규승 (문 72)	
애리조나	
정인주 (농 82)	
오레곤	
박희진 (농 78)	
남가주	
이성우 (문 72)	
워싱턴 DC	
정세근 (자 82)	
워싱턴	
임현민 (공 84)	
캐롤라이나	
정신호 (자 78)	
플로리다	
윤기형 (법 65)	
필라델피아	
심희진 (음 90)	
휴스턴	
김정환 (공 80)	
하와이	
성낙길 (문 77)	
하트랜드	
임소연 (음 91)	

알 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15일에 마감 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17@gmail.com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2023/7~2024/6, 1년) <input type="checkbox"/> \$100 (2024/7~2025/6, 1년) <input type="checkbox"/> \$200 (2023/7~2025/6, 2년)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 <input type="checkbox"/>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240 (2024/7월 ~ 2025/6월, 1년) <input type="checkbox"/> \$480 (2023/7월 ~ 2025/6월, 2년) <input type="checkbox"/> \$500 (디자인 추가시, 1년)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Color \$1,500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Black \$1,0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Color \$400	<input type="checkbox"/> \$500 (1년) <input type="checkbox"/> \$1,000 (1년)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입학년도):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 신청서란을 전부 채워주세요. (성함, 영어 성함, 단과대학,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 현주소 등)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392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Kenneth G. Yum, CPA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Diamond Bar, CA 9176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ce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 siloamchung@gmail.com	
680 Wilshire Pl, #420, Los Angeles, CA 90005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치과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sh@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Tustin, CA 92780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 UL-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의규 (상대 82)	
T: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haeahm@aol.com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박중효 소아과
박중효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EVS, Inc.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패밀리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Wealthy & Wise Family Office
이태영(법대60, 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 한국법인 대표)
T: 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Seoul Korea Honolulu HI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조지아

건축
Archipelago Construction LLC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d. Butord GA 30519

의료

Abbott Animal Hospital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renceville Hwy, Lilburn, GA 30345

필라델피아 |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오레곤 |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이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 213-388-4000

FLONOMIX INC.

COMPUTATIONAL SOLUTIONS FOR ENGINEERING EXCELLENCE

박희진 (농대 78)

503-648-0775

www.flonomix.com

Computational Modeling Analysis | Code Studies and Seminars



애용하는 동문 업소 번창하는 동문 사업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제17대 미주동창회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종섭(문), 박창규(약)
고문: 이영일(문) 이재진(문) 박중수(수)
박창규(약) 이홍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종(농)
남윤호(문)

차기회장 황호숙(사)

명예회장 노명호(공)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차),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최응환(상)
IT국장: 최경석(사)/부국장 박문수(공, 워싱턴DC)
Database 국장: 장병희(문)
섭외국장: 임항균(사)/함은선(음, 워싱턴 DC)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레(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이영주(농, 뉴욕)

장학위원회

위원장: 박평일(농)

위원: 황경순(공), 이치현(약, 캔사스)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포상위원회

위원장: 이상강(의)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태(미)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4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차기 회장 **채규환**(법대 69) T: (818)489-7892
Kchae100@yahoo.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대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nica@shaw.ca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미시간 MICHIGAN (Jul~June)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 79)
T: (408)464-4502
beomsuupkim@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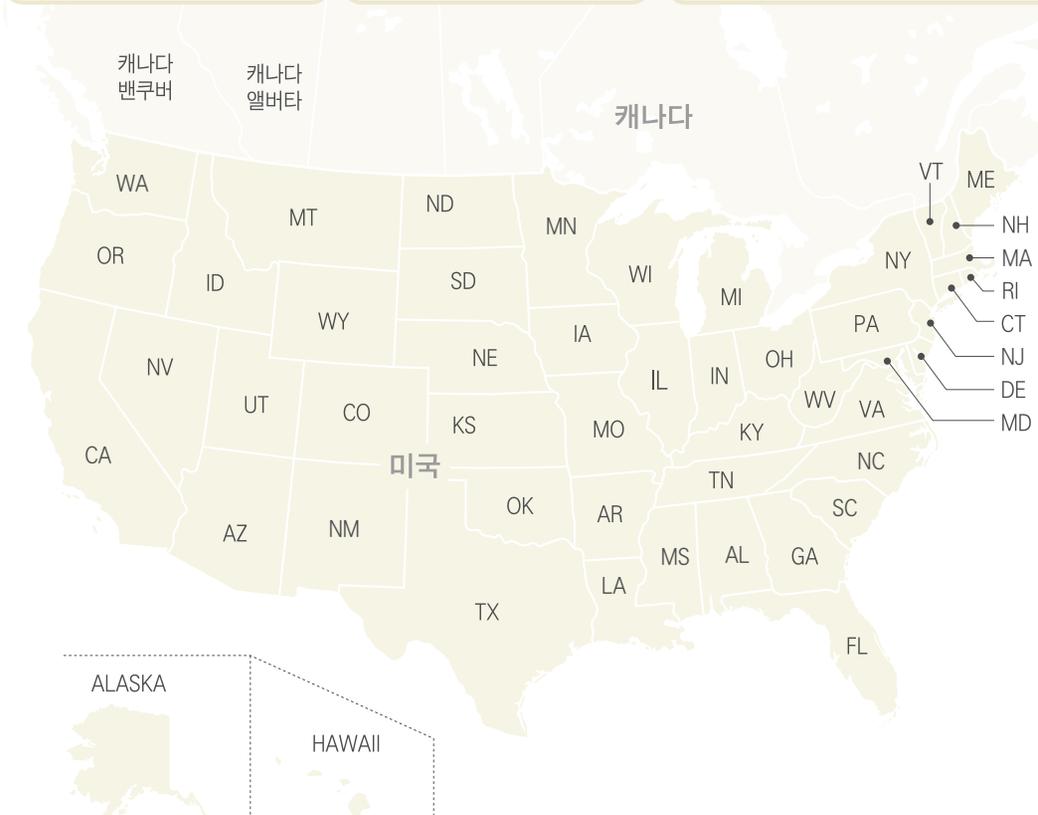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oon@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조규승**(문리대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차기 회장 **정성일**(공대 86) T: (301)395-7285
jeong05@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송오석(공대 91) T: (858) 349-6674
osoksong@gmail.com



뉴욕 NY/NJ (July~Jun)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임현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ft@hot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812-8778
shparkdream@g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hoejin.sim@gmail.com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 85) T: (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최화진(음대 85)
T: (828)242-7150
hwajinkimdma@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회장 **김건호**(공대 91)
kunjok@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 510-9196
snuarizona@gmail.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 65)
T: (561)962-5185
yuhn@fau.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듀오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듀오 뉴욕/LA 지사
구인광고 - 40대 영어와 한국말 필수

DUO America LA / NY www.duoamerica.net LA 213-383-2525 NY 212-915-7115



Beverly Cardiology Group

베벌리 순환기내과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T: 323-662-1175 김일영 (의대 65)



최무식 (약대 66)

Gilbert Drugs

길벗약국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T: 714-638-8230 | markchoirx@gmail.com

이병준 (상대 55)

MAKE THE WORLD BEAUTIFUL



SeAH

SeAH Steel America

2100 Main St. Suite 100
Irvine, CA 92614
(949) 655-8000

Byung Joon Lee

